

출발!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
5월 청소년토론회



2004 청소년인권예배말한다

2004 청소년인권을 말한다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 17대 국회와 함께 만들자

2004. 5

문화관광광부 ·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 청소년기획팀
문화관광광부 · 한국청소년개발원

출발! 청소년이 행복한나라만들기 프로젝트
5월 청소년토론회

2004 청소년인권을 말한다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 17대 국회와 함께 만들자

- 일시 : 2004년 5월 22일(토) 13:00~16:30
- 장소 : 한국스카우트연맹 10층 대강당

‘청소년이 행복한나라만들기 프로젝트’ 청소년기획팀
문화관광부 ·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 헌장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청소년의 권리

1.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의 책임

1.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
1. 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
1. 청소년은 가정·학교·사회·국가·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1. 청소년은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1. 청소년은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
1. 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한다.
1. 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간다.
1.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1. 청소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 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

먼저 바쁘신 중에도 청소년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이 행사에 직접 참여해주셔서 축사를 말씀해주시는 오지철 문화관광부 차관님과 조현재 청소년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초 발제를 맡아주신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님,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준 김판중·이효숙·고승재·김상이·전누리·정국진·윤영현·이준행·이호선·지은선·우지혜·이선미·임태훈 청소년위원들과,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이문석 전교조 학생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장은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상담실장, 김정하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 박준표 청소년직업센터 문화기획자, 윤철경 한국청소년개발원 복지정책실장, 정당별 청소년정책비전 소개를 해주시는 김형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군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문성준 민주노동당 정책부장님, 사회를 맡아 수고해주시는 박은영 청소년기획팀 학생과 함병수 한국청소년개발원 기획조정실장님, 또한 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의 인성함양과 잠재력 개발, 청소년의 능동적인 삶의 실현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정부의 청소년육성관련 정책개발과 시행·보급을 위한 기초연구, 자문 및 분석·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육성사업의 방향설정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및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빈 여러분, 21세기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은 한 나라가 청소년을 어떻게 육성하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청소년들이 자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체로서 사회 각 분야에 참여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지닌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몫입니다. 그 동안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부분적인 노력은 있었으나 세분화되고, 심층적이며, 종합적인 접근과 논의는 없

있습니다. 이번에 청소년, 정치인, 청소년 연구자, 청소년 전문가, 청소년지도자, 교사 등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러한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이번 행사는 특히, 청소년 자치조직들이 중심이 되어 기획, 실행, 평가하는 등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성인들과 동등하게 파트너십을 이루어 진행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다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모든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자율과 참여를 주요 이념으로 설정하고, 청소년을 시민권을 가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다양한 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또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치조직을 구성·운영하고 다양한 사회참여 운동을 통해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인권침해 환경들은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2004년 오늘, 국가 사회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문화관광부와 한국청소년개발원이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청소년기획팀이 주체가 되어, 「청소년의 인권현황과 과제·청소년이 행복한 나라, 17대 국회와 함께 만들자」라는 주제로 청소년, 국회의원, 학자, 청소년지도자 그리고 각계 각층의 인사들을 모시어 토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여 주신 청소년기획팀, 문화관광부 관계자와 한국청소년개발원 모든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서 토론되는 청소년인권과 청소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서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에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5월 22일

한국청소년개발원 원장 권 이 중

인 사 말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작은 물방울 하나일지라도 계속해서 충격을 가하게 되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커다란 바위덩어리도 쪼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오늘 열린 『청소년 인권현황과 과제·청소년이 행복한 나라, 17대 국회와 함께 만들자』라는 주제의 토론회 역시도 이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그로인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모든 이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 국가를 꿈꾸는 저희들의 노력 하나하나가 언젠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열린 이 토론회는 앞으로 청소년들의 인권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참여로 시작되고 참여로 완성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시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걸음 더 나아가는데 뜻을 보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만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5월 22일

청소년기획팀 대표 임 태 훈

축 사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 만들기」프로젝트가 오늘 이 토론회를 계기로 힘차게 출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5월은 그 신록의 아름다움과 뻗어가는 생명력에 걸맞게 「청소년의 달」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의 청소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청소년으로서의 인권을 제대로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그리고 일터와 사회에서 갖가지 제약과 부당한 처우에 신음하고 있다고 하는 게 오히려 솔직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2004 청소년인권을 말한다”라는 주제를 갖고 열리는 오늘 청소년토론회는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열악한 청소년 인권상황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 모색을 위해 조직화된 목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토론회를 위해 청소년 자치조직들이 모여 성인들과 파트너십을 이루어 자발적·자율적으로 기획·실행·평가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이번 토론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 만들기」프로젝트의 첫걸음이라는 점입니다. 넷째, 이번 토론회에는 제17대 국회의 청소년정책에 관심있는 각당 당선자들이 참여하여, 그야말로 범국민적·국가적 관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의 인권 신장과 참여 보장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침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도 제·개정되어,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오늘, 희망찬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 만들기」프로젝트와 함께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5월 22일

문화관광부장관 이 창 동

출발!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

“2004 청소년인권을 말한다”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 17대 국회와 함께 만들자”

■ 진행 일정표

- 13:00 ~ 13:20 등록
13:20 ~ 13:30 인사말 : 권이종 (한국청소년개발원장)·임태훈 (청소년기획팀 대표)
축 사 :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
13:30 ~ 13:50 기조발제 : 청소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제 1 부 : 청소년 인권현황과 과제

사 회 :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13:50 ~ 15:00

- ♣ 청소년의 놀권리와 문화적 권리
김판중 (‘꿈’ 청소년문화공동체 청소년축제기획단 ‘노올자’)
이효숙·소세련·권태은·고승재·김윤식 (청소년문화공동체 ‘푸른이’)
- ♣ 획일적 입시위주 교육과 청소년의 인권
김상아·전누리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이문석 (전교조 학생청소년위원회 위원장)
- ♣ 학교폭력과 체벌 -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세요’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담실장)
- ♣ 소외계층 청소년의 기본권
김정하 (중앙일보 ‘가난에 갇힌 아이들·We Start’ 특별취재팀 기자)
- ♣ 지정토론 : 박준표 (Pyo, 하자센터·문화기획자)

15:00 ~ 15:10 자유토론
 15:10 ~ 15:20 휴 식

제 2 부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 17대 국회와 함께 만들자

사 회 : 함병수 (한국청소년개발원 기획조정실장)

15:20 ~ 16:20

♣ 참여정부 청소년정책과 비전
 오지철 (문화관광부 차관)

♣ '17대 국회, 청소년정책 이렇게 생각한다'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
 정국진 (청소년기획팀)
 김영지·김경준·이혜연·김세진 (한국청소년개발원)

♣ 17대 총선 청소년분야 공약 비교·분석
 윤철경 (한국청소년개발원 복지정책연구실장)

♣ 정당별 청소년정책 비전 소개
 김형주 (열린우리당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이군현 (한나라당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문성준 (민주노동당 정책부장)

♣ 청소년 패널 의견발표와 질의
 사회 / 윤영현 (청소년기획팀)
 패널 / 이준행 (청소년포털사이트 idoo.net webmaster)
 이호선 (전라북도청소년자치위원회 위원장)
 지은선 (부산합지골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지혜 (대구청소년문화아케이드 '우주인')
 이선미 (강원도 Distopia 의장·원주여자고등학교)

16:20 ~ 16:30 종합토론

16:30 ~ 16:35 '17대 국회에 바란다' 청소년 성명서 발표 / 임태훈 (청소년기획팀)

차 례

- 기초발제 : 청소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1
 이용교 (광주대 교수)
- 청소년의 놀권리와 문화적 권리 31
 김판중 ('뽀' 청소년문화공동체)
- 우리에게 놀(문화를 누릴) '짬'과 놀(문화를 누릴) '곳'과
 놀(문화를 누릴) '감'은 있는가 39
 권태은 · 소세련 · 이효숙 (천안월봉고) · 고승재 · 김윤식 (천안중앙고)
- 획일적 입시위주 교육과 청소년의 인권 53
 남궁정 (이대부고) · 김상이 (청원여고) · 전누리 (구로고)
- 입시위주 교육과 학생인권 65
 이문석 (전교조 학생청소년위원회 위원장)
- 학교내 인권과 차별 :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세요' 75
 장은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상담실장)
- 가난에 갇힌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99
 김정하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
- 지정토론 : 청소년은 없고 '학생'만 있다 113
 박준표 (PyO, 하자센터 · 문화기획자)

- 참여정부 청소년정책 비전 :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 123
오지철 (문화관광부 차관)
- 17대 국회, 청소년정책 이렇게 생각한다 : 설문조사 결과 139
정국진 (청소년기획팀)
- 17대 총선 청소년분야 공약 비교·분석 159
윤철경 (한국청소년개발원 복지정책연구실장)
- 패널토론 자료 : 정당별 공약사항 분석 자료집 181
윤영현·박은영 (청소년기획팀)
- '17대 국회에 바란다' : 청소년 인권확대와 복지향상을 위한 성명서 203
청소년이 행복한나라만들기 프로젝트 '청소년기획팀' (발표 : 임태훈)
- 부 록
- 청소년 자치활동단체 소개 207
- 청소년기획팀 후기 225

<기조 발제>

청소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용 교
(광주대학교 교수)

청소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청소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 아침 밥을 잘 먹었습니까?

..... ()교시

교문을 무사히 통과했습니까?

..... 선도규정

수업에 만족합니까?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까?

폭언을 듣거나 맞지는 않았습니까?

혹 차별받지는 않았습니까?

..... 성차별 등

행복은 성적순입니까?

꿈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까?

용돈은 충분합니까?

오늘 밤 편히 자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 행복하게 삽시다!!

- 0교시와 강제타율학습을 폐지합니다.
아침밥을 먹고 삼시다.
야간 강제타율학습을 폐지하고 잠을 충분히 잡시다.
-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행복한 학교를 만듭시다.
학생회의 대표성을 높인다.
- 학교와 사회에서 청소년자치공간을 확보합니다.(학교내에 동아리방, 사회에 청소년수련관 등에 청소년자치공간 등 확보)
-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확보합니다.
- 학습과목과 내용에서 선택의 자유를 확보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자유를 누립니다.
교사평가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 생활양식에서 성차별을 폐지합니다.
가정에서 출생순위에 의한 차별, 학교에서 성차별, 사회에서 연령차별등
- 생활공간에서 사생활을 보장받읍시다.(사물함, 탈의실, 소지품, 통신사용 등)
- 신체적, 성적, 언어적 학대가 없는 학교/가정을 만듭시다.(폭언, 체벌등)
- 일한 댓가를 공정히 받읍시다.(아르바이트 등)
- 고민에 대한 상담을 전문적으로 받읍시다.(전문상담교사, 학교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센터 등)

[자 료]¹⁾

☞ 고교생 69.7% '우울증' ...7.3% '자살시도'

고교생의 69.7%가 우울 증세를 갖고 있으며, 7.3%는 슬픔이나 절망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희대 행정대학원 의료행정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김영란(41)씨는 20일 학위논문 「고등학생의 우울에 관한 연구」에서 서울의 인문계·실업계 고교 각 2곳의 학생 558명(남녀 각각 2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논문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69.7%가 우울 증세를 갖고 있었으며, 증상별로는 경증이 30.8%인 반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거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이상도 38.9%에 달했다.

우울한 정도를 나타내는 항목별로는 '피곤하다', '슬프다', '실패감이 든다' 등의 답변이 많았으며, '성(sex)에 대한 관심', '일상생활이 예전과 다름', '벌을 받고 있다는 느낌',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보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학교성적이 낮은 학생 친구가 적거나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 학교생활에 불만족한 학생 고민 대화 상대자가 없는 학생 등에서 우울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자살관련 성향을 파악한 결과, 응답자의 45.3%(253명)는 '2주 이상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23.7%(132명)는 '심각한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 중 13.4%(75명)는 '자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유서를 쓴 경험이 있다'(5.6%, 31명)거나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7.3%, 41명)는 응답도 많아 자살에 대한 인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직 간호사인 김씨는 "고등학생의 상당수가 우울을 경험하고 있고 이중 38.9%는 치료를 필요로 할 만큼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등이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4.02.20)

☞ 청소년을 소외시키는 '청소년증'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학생증이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다. 청소년증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 학생증의 구실을 한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 주민등록증인 셈이다.

1) 본 자료는 한겨레 신문 2004년 1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기사 중에서 '제목+본문'으로 '청소년'을 검색한 결과 검색된 721건의 기사에서 몇 가지를 선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청소년증은 그들을 다시 한번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모든 청소년들의 혜택을 위한 청소년증이 아닌 불량 청소년 확인증 또는 자퇴 확인증이 되어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혜택을 받기 위해 발급받은 청소년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제도가 분명하다. 나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하라고 제안하고 싶다. 모든 재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직접 신청하게 말이다. 그리고 청소년증을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혜택도 좀더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 문화에 비중이 큰 영화관이나 쇼핑몰 등에서의 혜택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학생들이 청소년증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마음 놓고 청소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어 일부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인간 소외의 고통을 없애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4.02.17)

● 청소년 성상담 절반이 '성매매' 관련

작년 한해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 산하 성착취 피해청소년 법률지원단에 접수된 상담의 46%인 절반 가량이 성매매와 관련된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청보위에 따르면 작년 처음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성착취 피해청소년 법률지원단에 접수된 총 상담건수는 165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상담 내용별로 보면 티켓다방과 단란주점 등 업소형 성매매 71건, 원조교제 등 개인형 성매매 5건 등으로 청소년 성매매가 전체의 46%에 이르는 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각종 법률문의 등 기타가 44건(26.6%), 성폭력 26건(15.8%), 학교폭력 8건(4.9%), 아르바이트 6건(3.7%), 가출 5건(3.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업소형 성매매 71건의 경우 실제 자문에 이어 변호사 연계, 소송에 이르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법률지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만도 31건(43.7%)이나 됐다.

여기에는 성매매 피해여성 청소년이 법률지원단을 도움을 받아 이례적으로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만도 5건에 이르고,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은 1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의 경우 피해여성 청소년과 업주 간 합의가 이뤄지는 민원이 1건에 불과했으며, 법률지원과정에서 피해여성이 연락을 끊어 도중에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도 12건이나 됐다고 청보위는 설명했다.

청보위는 "앞으로도 청소년 성매매 업주에 대해서는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실질적 제재를 통해 피해여성 청소년이 겪어왔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충분한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며 "업주가 청소년을 불법 고용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등 청소년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04.02.26)

● 청소년 근로계약 피해

얼마 전 뉴스에서 고용주에게 착취당하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가 보도되었다. 어른으로서 부끄러울 정도로, 상대적으로 약한 청소년에게 갖은 불법을 저지른 사례들이 나왔다.

최저임금 이하의 수당, 성희롱, 그리고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조차 떼어먹는 것까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을 작성할 리도 없고 그렇게 하자고 하면 고용주가 채용 안해줄게 뻔하니까 최소한 법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이나 근로계약서라는 것조차 모르는 것이다. 또한 혼자 감당하기 힘든 불이익을 당했을 때 상의할 사람도 없고 해결해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도 모른다. 어른을 상대로 싸우기 버거워 한번 재수없게 당했다고 청소년들이 쉽게 포기하게 되고, 업주들은 그 약점을 이용해 계속 같은 방법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을 착취하게 되는 것이다.

한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교육이나 정보를 접했다면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렇게 어이없게 당하고 하나같이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에 갇혀 있는 청소년들이 혼자서 바깥으로 내몰렸을 때 일방적으로 당하고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면 열패감과 증오심부터 배우게 되지 않을까

당장 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제상식이나 법률상식도 모르고 문 밖을 나선다는 게 얼마나 안쓰러운 일인가 성인들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임금체불이나 악덕업주의 부당한 대우를 청소년들이 혼자서 감내한다는 것은 사회가 반성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다.

이런 뉴스를 보도할 때도 사례만 나열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 등 해결책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이런 교육은 1년에 한두 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경제, 법률 교육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4.05.06)

이런 뉴스를 보도할 때도 사례만 나열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 등 해결책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이런 교육은 1년에 한두 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경제, 법률 교육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4.05.06)

● 아르바이트직원 70% 근로계약서 작성안해

아르바이트 직원 가운데 70% 가량이 임금과 근무시간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아르바이트 전문 사이트 알바누리(albanuri.co.kr)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4777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지'를 설문조사해 공개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8.8%가 "작성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19살 이하 청소년의 경우 73.2%(789명)가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20~23살은 70.5%(1231명), 27살 이상은 69.4%(566명), 24~26살은 61.5%(701명)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4.02.11)

● 한달용돈 대개 2만~10만원 저축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아빠가 일하시다가 늦게 퇴근하시는걸 보면 죄송하기도 하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청소년을 겨냥한 잡지, 화장품, 이벤트 상품 등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다. 기업에서도 청소년 소비층을 잡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을 봐도, 경제에서 청소년의 소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엠에프 때의 경제위기를 다시 느끼게 할 만큼 경제사정이 안좋은 요즘에도, 청소년들에게 경제위기란 말은 찾아보기 힘들 만큼 소비는 줄지 않고 있다.

한달에 2만원 정도 용돈을 받는 군산여고 최보라(18)양은 “용돈은 거의 친구 생일 선물을 사거나 군것질 하는 데 쓰기도 하고 나중에 옷을 사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달에 용돈으로 10만원을 받는 광동여고 김아무개(18)양도 “주로 먹는 데에 쓰거나 놀러다닐 때 쓴다”고 말했다.

용돈의 액수와는 상관없이 청소년들이 돈을 쓰는 곳은 비슷하다. 친구 선물을 사거나 놀러다니거나 군것질 하는 데에 용돈의 대부분을 쓰지만 저축을 하는 청소년들은 드물었다. 군산여고 최유리(19)양은 “한달에 4만원 정도 쓰는데, 저축은 전혀 안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몇몇 청소년들은 용돈을 아껴 저축을 하기도 한다. 군산여고 강은별(18)양은 “용돈을 모아서 디지털 카메라를 샀는데, 내가 조금씩 돈을 모아 산 것이라 다른 물건보다 더 소중하게 다루게 된다”고 말했다. 강양은 “친구들은 자기들은 나처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는 데 전혀 그렇지 않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군산여고 이아무개(18)양은 “가끔 길을 가다가 예쁜 게 있으면 집에 있는 것이라도 무작정 사서 나중에 후회하곤 하는데, 아빠가 일하시다가 늦게 퇴근하시는 걸 보면 내가 너무 돈을 계획 없이 쓰는 것 같아 죄송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양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계획성 없이 돈을 쓰는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고쳐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었던 김영은(18)양은 “부모님께 용돈을 받을 때는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는 일이 많았는데, 직접 돈을 벌어서 써보니까 돈을 쓸 때도 신중해진다”며 “그래서 꼭 필요한 물건만 사게 된다”고 말했다. 김양처럼 아르바이트를 해본 청소년들은 한결같이 “돈 버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다”며 “다들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알아야 돈을 아껴쓸 것 같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일을 해서 용돈을 벌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생활에서만은 계획을 세워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조금씩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과소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2004.02.22)

● 학교교육-취업 따로 논다

실업고 대입에 치중...취업자 38% 그쳐

대학생 20% 휴학...10년새 50% 늘어통계청 '청소년 통계' 발표

실업계 고교도 취업보다 대학 진학에 치중하면서, 졸업생 중 취업자 비율이 10년 전과 견주어 절반 아래 떨어졌다. 또 고교 졸업자의 80%가 대학에 갈 정도로 대학 진학률은 높아졌으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휴학하는 대학생 비율이 10년 사이 50% 가까이 늘어났다. 학교 교육과 취업이 동떨어진 채 따로 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청소년 통계'를 보면, 실업계 고교 졸업생 중 대학 진학 비율이 1993년 10.3%에서 2003년 57.6%로 5배 이상 높아진 반면, 취업자 비율은 같은 기간 77.0%에서 38.1%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군 입대나 결혼 등이다.

실업계 고교를 포함해 너도나도 대학에 진학하려는 경향과 대학교 수 증가 때문에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93년 38.6%에서 2003년 79.7%로 늘어났다. 고교 졸업생 10명 중 8명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 사정이 나빠지면서, 대학 재학 도중 휴학하는 학생 비율이 같은 기간 14.3%에서 20.1%로 경추 뛰었다. 대학생 5명 가운데 1명 꼴이 휴학생이다. 80년의 휴학생 비율 8.2%와 견줘보면 갑절 넘게 높아진 것이다.

또 청소년 취업의 질도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15~24살의 청소년 취업자의 산업별 취업 구성을 보면,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숙박 등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이 80년 36.8%에서 93년 66.7%, 2003년 80.5%로 갈수록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을 비롯한 광공업 취업자 비중은 80년 41.6%에서 93년 30.8%, 2003년 18.3%로 크게 낮아졌다.

이와 함께 청년층 취업자 가운데 절반이 가족이나 친지 등의 소개를 통한 연고 취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5~29살 청년층 취업자의 취업 방법을 조사한 결과, 연고 취업이 49.6%에 이른 반면, 신문·인터넷 등을 통한 응모와 공개 시험을 거친 취업은 각각 22.5%와 16.0%에 지나지 않았다.

또 청소년의 유흥업소 등 유해업소 취업이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취업금지 업소에 취업할 때 업주가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무려 74.9%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4.05.06)

● 중고생 '시급' 적어도 2.259원 받아야

쉽게 돈벌기? '유혹' 속엔 '함정'이

미성년자도 최저임금제 적용받아

근로계약서 작성 27%에 그쳐

임금 등 때일때 근거서류로 필요

강원도 원주에 사는 임아무개군(17)은 지난해 여름방학 중 한달동안 하루 12시간씩 동네 만화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임군이 일한 대가로 받은 돈은 48만원으로, 시간당 급여로 따지면 1700원이 채 안됐다. 임군은 애초 월 65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지만, 업주는 임금을 줄 날짜가 되자 '하루 일당 2만원'이라는 다른 기준을 제시했다. 임군은 처음 약속한 임

금을 받기 위한 방법을 찾고 싶었지만, 별 뽀족한 수가 없어서 지금은 포기한 상태다. 이 학생은 "최저임금제가 나같은 미성년자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

지난해 9월 발효된 최저임금법을 보면, 시간당 최저 급여는 2510원, 하루일당 최저치는 2만80원(8시간 근무)이다. 18살 미만 청소년도 6개월 이상 근무할 때는 성인과 똑같은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받는다. 중·고생이 짧은 기간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최저시급은 성인기준의 90%인 2259원이다. 따라서 임금이 받은 시간당 1700원은 최저임금에 턱 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 아르바이트 정보제공 업체가 최근 중·고생 725명을 대상으로 시간당 급여를 조사한 결과, 2259원 미만을 받은 경우가 13%에 달했고, 이 중 절반 가량은 2000원 미만이었다.

아르바이트 중·고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 및 부모님 동의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노동부 장애인고용과의 한 관계자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도 근무시간, 주요 업무, 휴일·휴게시간, 임금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며, 18살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아르바이트 학생의 부모님 등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두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밝힌다.

그러나 이런 절차가 지켜지는 예는 거의 드물다. 노동부가 전국 중·고생의 1%에 해당하는 3만6825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해 최근 밝힌 결과를 보면, 아르바이트를 해봤던 학생 7969명 가운데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한 경우는 26.8%에 불과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일을 한 경우는 62.1%로 절반을 넘는 수치였으나, 이 가운데 '부모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중·고생들은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반드시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업주를 상대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해 줘야 한다. 고용주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하는 당사자인 학생이 챙겨야 할 때가 많다. 두 가지 양식은 각 지방 노동사무소에 가면 구할 수 있으며, 노동부 전자민원시스템(minwon.molab.go.kr)으로 들어가면 전국 지역별 노동사무소의 위치와 연락처를 알 수 있다. 혹시라도 임금을 떼일 경우 지방 노동사무소나 노동부 전자민원시스템으로 진정서를 내서 해결해야 하는데, 이 때 근로계약서 등 근거가 있으면 훨씬 쉽게 일이 풀릴 수 있다.

노동부 조사 결과는 아르바이트 중·고생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중·고생들이 업주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은 사례로 꼽은 것은 약속한 근로시간 초과(11.5%), 휴일없이 근로(9.3%),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받음(9.1%), 급여날짜를 안 지킴(7.05%), 휴식시간 없음(6.8%), 무단해고(6.5%), 욕설·폭행·인격모독(6.4%), 퇴직후 임금 못 받음(6.3%), 최저임금 미만 수령(5.1%) 등이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런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지내거나(16.6%), 일을 그만두는(10.2%) 선에서 그쳤다.

피해를 당할 경우는 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부모님 또는 학교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참여연대(peoplepower21.org)의 김다혜 간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시간만 차이가 있을 뿐 정규노동자와 차별 없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고 말한다. 중·고생 아르바이트 정보를 구하거나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노동부 전자민원실 외에 청소년문화센터(ycc.ne.kr), 일하는 청소년지원센터(job1318.ymca.or.kr), 청소년 아르바이트(youthalba.or.kr), 전북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jbyouth.or.kr), 한돌청소년문화공동체(youthfriend.or.kr) 등이 있다. (2004.01.18)

● 미성년 상대 수사 이렇게 해도 되나

부천 초등생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5살난 중학생 박아무개군을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체포했다가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며 풀어준 것은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우선 뚜렷한 물증도 없이 용의자의 입에만 의존해 갈팡질팡하는 경찰의 모습은 보기에 딱하다. 용의점을 발견했다면 치밀한 수사를 통해 구체적 물증을 확보한 뒤 체포하는 게 수사의 정석이다. 자백했다고 성급히 잡아들이고, 자백을 반복했다고 풀어주는 것은 수사의 기본과도 어긋난 것이다.

게다가 상대는 미성년이다. 나이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한 수사는 어른보다도 더 신경을 쓰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범죄자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한 젊은이의 미래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도 "박군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에 의심할 바가 많다"며 범인으로 단정짓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정도 언급만으로 경찰이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특히 박군의 자백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큰 잘못이다. 앞으로 보강수사에서 박군이 범인으로 밝혀지더라도 경찰의 이런 허물까지 덮이지는 않는다. 하물며 박군이 무죄로 판명된다면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언론들 역시 청소년 인권문제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언론들도 물론 박군이 과연 범인일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신중함을 보였다. 하지만 경찰 스스로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는데도 굳이 서둘러 쓸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이 소년의 장래 등을 생각해 좀더 세심히 접근하는 게 옳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든다. 게다가 일부 언론에서 박군이 평소 불량배들과 자주 어울렸고 허리띠로 친구들의 목을 조르는 장난을 많이 쳤다는 등의 내용까지 보도한 것은 너무 지나쳤다. 경찰이나 언론 두루 이번 사건을 청소년 인권문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2004.02.19)

● "청소년의 미래 촛불로 밝혀야죠"

여중생 추모 촛불집회에 날마다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광화문 지킴이'로 불렸던 이계덕(18·서울국악예고3)군이 이번에도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나섰다. 지난 17일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몰아내는 데만 정신이 팔린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는 항의의 뜻으로 중국 전

통복장을 하고 나타났던 이군은 탄핵안이 통과된 12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고 한다.

이군은 “라디오를 듣던 친구들이 ‘노무현 잘린다, 대통령 바뀐다’ 고 수군거리는 것을 듣고 가방 챙기는 것도 잊은 채 여의도로 달려나왔다”고 말했다.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도 요즘 정치 얘기가 만발하고 있다고 한다. ‘4월15일은 무슨 날 쓰레기 분리수거의 날!’이라는 말은 학교 최고의 유행어로 떠올랐다. 이군은 “총선을 ‘노는 날’ 정도로만 생각하고 좋아했던 예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며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탄핵과 총선 얘기를 많이 나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학생들과 선생님 모두 수업시간에는 되도록 탄핵에 대한 얘기를 나누지 않는다. 혹시라도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일 것을 서로 조심해서란다.

뚝 부러지는 언행 때문에 ‘고딩 운동권’ 아니냐는 의심도 받는다는 이군은 “정치적인 목적이 나 지향점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저 옳다고 믿는 것을 속 시원히 외치고 싶어서 나오는 것”이라며 “지금 광화문은 청소년의 미래가 바뀌는 역사의 현장”이라고 말했다. (2004.03.18)

● 대안학교 재학생 62.4% “삶에 대한 자신감 찾았다”

서울시내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 대부분이 학교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대안교육에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12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안교육사업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 자료를 보면, 전체 학생의 87.3%가 ‘대안학교가 청소년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답했고, 여학생은 94.6%가 ‘그렇다’고 응답해 남학생(80.4%)보다 높게 평가했다.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취업,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있다”는 항목에는 65.4%가 ‘그렇다’고 답했다. 여기서도 남학생(60.4%)보다 여학생(70.6%)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대안학교를 다니며 삶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심이 생겼다”는 질문에 62.4%(여학생 67.4%, 남학생 57.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특히 대안학교는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대안학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항목에 대해 79.9%(여학생 85.5%, 남학생 74.1%)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대답했고,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항목에는 학생 72%가 ‘그렇다’고 답했다.

시정개발연구원 신경희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대안교육사업이 양성평등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대안학교 교사들의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높고, 학생 개별 특성과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일대일 맞춤형 대안교육체계를 갖췄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 연구위원은 또 “임신과 출산, 원조교제, 매매춘 등의 이유로 정규학교를 중단한 10대 여학생을 위해

앞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대안교육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13일~20일 시내 대안학교 10곳의 학생 18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04.02.13)

● 초·중·고생 41% 학교폭력 크게 걱정

초·중·고생의 41%가 ‘학교폭력’을 심각한 수준으로 우려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희대 행정대학원(사회복지학 전공) 학생 이은미(36)씨는 최근 경기도 초·중·고생 2만1천509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실태를 조사, 분석한 보고서를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했다.

23일 「학교폭력의 실태분석 및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이 논문에 따르면 학교폭력 양상에 대해 응답자의 41%가 ‘심각한 편’이라고 답했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45%), 초등학생(41%), 고등학생(34%) 순으로 ‘심각하다’는 답변 비율이 높았다.

교내 폭력서클의 존재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45%가 ‘있다’고 대답했고, 서클 수는 학교마다 ‘1~2개’ 35%, ‘3~4개’ 7%, ‘5개 이상’ 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교내 폭력 서클이 있다는 답변은 중학생(59%) 집단에서 가장 많았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같은 학교 선·후배’가 전체의 3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모르는 불량배’(28%), ‘동급생’(26%), ‘다른 학교 학생’(1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폭력장소는 교내의 경우 ‘교실’(28%)과 ‘화장실’(25%), ‘운동장 등 기타’(39%)등으로 꼽혔고 학교 밖은 ‘공터’(39%)에서 폭력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지적됐다.

학교폭력 목격 후 행동과 관련해 전체의 45%가 ‘내가 피해를 볼 것 같아서 나서지 못한다’고 답변,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방관하는 시대적 분위기가 교내에도 팽배해 있음을 보여줬다.

폭력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57%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말해 대부분 학교폭력 피해사태가 교사나 학부모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폭력피해로 교사나 학부모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조사한 결과,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39%)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오히려 보복을 당했다’는 답변도 25%나 됐다.

이씨는 “학교폭력이 중·고교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초등학교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최근 학교 폭력은 놀이처럼 별다른 죄의식도 없이 행해지며 집단적 양상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폭력예방재단과 같은 전문 상담기관을 육성하고, 청소년 범죄 예방과 선도를 위한 ‘청소년폭력예방법’을 제정하는 등 학교폭력 대책을 하루 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4.2.23)

☞ 학생인권 보호 외국선 이렇게

외국은 어떤 방식으로 학생인권을 보장할까.

미국의 경우 학생의 자치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돼 있다. 미국 학생들은 교사회, 학부모회, 지역인사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학칙 제정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학생들은 교육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조련'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능동적으로 참여해 합의한 학칙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동학칙'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나 지역주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까지 담고 있다.

학생인권은 '학생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노력으로 지켜야 하는 가치'라는 교육철학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에서도 지난 1969년부터 공동학칙의 제정과 운영을 학부모 대표와 학생 대표를 포함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토의할 것을 '기초학교학습지도요령'이라는 법적 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다.

프랑스는 심지어 초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학부모나 교육행정기관 및 지역대표들과 동수로 학교협의회에 참석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학칙제정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운영에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들은 학생을 기본적 인권을 지닌 교육 주체로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교육부→교육청→교장→교감→부장→교사→학생'이라는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구조 속에서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통제에 길들여져 있다.

학교마다 학생회가 존재하고 초·중·고교육법에도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활동을 권장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학교에서 학생회는 선언적인 기구에 불과하다.

심성보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정책위원장은 "교사에게 교권이 있듯이 학생들에게도 학생인권이 있다"며 "학생들이 스스로의 인격을 보호하고 학교에서 주체적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01.26)

☞ "체벌 퇴장" 크게 외치자

그럴수도? 그럴수가?

"니가 교장이야"

이달 초 한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을 마구 폭행한 사건이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생생히 알려졌다. 주먹으로 학생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려치는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아직까지 이런 폭력이 교육현장에 남아있는가" 하는 탄식의 목소리도 컸다.

날것 그대로의 폭력현장이 동영상으로 공개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더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학생 폭행 사례는 그리 드문 것이 아니다. 한양대 교육대학원 한승덕씨의 석사논문에는 따르면 서울·경기지역 고등학생 3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9.6%의 학생이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가 지난해 받은 면접상담 20건 중 절반인 10건이 체벌 문제로 소송을 준비중인 내용이었다. 참교육학부모회가 올해 초 펴낸 상담사례집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에는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례들이 실려 있다.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시간에 '버릇없음'을 이유로 학생을 폭행했다. 숙제검사를 하던 중 피해학생이 숙제를 잘못 내자 교사가 "미친놈들"이라고 말했고, 피해학생이 그 발언 그대로 공책에 낙서를 하고 학생들이 웅성거리자 교사는 학생의 뺨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십여 차례 때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복도를 끌고 다녔다. 교사의 욕박에 학생이 대답을 하지 않자 다시 주먹으로 뺨을 때려 학생의 이가 부러지고 얼굴이 부어올랐다. 교사는 "이빨이 부러졌다"고 호소하는 학생을 몇 차례 더 때린 뒤 "병원에 가서 엄마가 때렸다고 하라"고 시켰다.

학생은 치과 상해진단 결과 치관파절, 치아지지조직 손상 등 5군데에 상해를 입었으며 치아동요와 치아지지조직 손상으로 인해 2주간 유동식을 먹으라는 권고를 받았다. 학생은 학교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치료를 받으며 자다가 잠잠잠잠 놀라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증세를 보였다.

폭력 동영상·교사 자살등 학교체벌 연이은 충격
'최소화 규정 모호...' 체벌허용 조항 삭제요구 거세
전문가·사회기관 등 연계 일탈학생 보듬기 힘써야

교육현장의 체벌논란은 매우 해묵은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서 체벌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주장과, 많은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라는 주장이 맞서 왔고 이 논쟁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최근 체벌을 받은 학생이 자살하고, 체벌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던 교사가 자살하는 등 이제는 체벌 문제가 단순한 교육방법론에 대한 논쟁을 벗어나서 사람의 목숨이 달린, 교육현장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현재 체벌에 대한 교육당국의 입장은 '최소화 한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는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정도의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정도다. 체벌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자 교육부는 체벌에 관한 규정을 정리한 체벌표준안을 만들기까지 했다. 체벌표준안은 '체벌은 기합 또는 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그 외의 방법은 허용하지 않는다', '교사는 체벌 전에 학생의 체벌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묻고 체벌을 수용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만 체벌을 행한다',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 또는 교감에게 사전 구두 허락을 얻고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체벌 후 사후 보고를 할 수 있다', '매에 의한 체벌을 할 경우 하나의 사안에 대한 체벌로 5대를 넘지 못한다', '학교는 매(지름 1cm, 길이 50cm)를 교장실과 교무실 등 학생의 일상 생활공간이 아닌 장소에 비치해 놓는다'

타당하지만 일면 실현 불가능한 조항들로 채워져 있다. 이 표준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규범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 381개 초·중·고교 가운데 72.6%인 7536개교가 학칙에 체벌표준안을 참조하는 등의 체벌 허용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어린이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라"는 조항을 포함한 정부권고안을 내놓은 것을 계기로 체벌 자체를 금지하는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은 '학교의 장은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7조 7항이다. 이 조항은 뒤집어 본다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체벌을 정당화하는 규정이 교사들로 하여금 죄의식 없이 체벌을 가하게 하는 근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런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의식을 교사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학교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유명무실한 체벌 교원징계규정안을 대폭 강화해 교사들이 체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학부모·인권 단체의 요구다.

한때 학생의 학교폭력 사망 사건으로 충격을 줬던 서울 성수여중은 남녀공학인 성원중학교로 학교를 바꾸고 학교 폭력을 없애는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교사의 체벌이 금지된 것은 물론이다. 성원중학교는 한국학교사회사업실천가협회 소속의 복지사가 학교에 상주하면서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집단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전개한 결과 '체벌없는 학교'로 자리잡았다. 교사들의 호응이 높은 것은 물론이다. 고승혜 교장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교내 폭력 사태나 체벌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며 "폭력 없는 학교에 대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만족이 모두 높다"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노원재 상담부장은 "많은 학생들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체벌을 해서

라도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항변은 옳은 이야기다" 라면서도 "자아가 강해지고 또래집단에 강하게 동조하고 반항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당연한 습성이라는 것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부장은 체벌의 가장 나쁜 점은 학생들에게 "일탈을 하더라도 몇 대 맞고 말지"라는 무책임한 생각을 키워주는 데 있다며 전문가 상담이나 사회교육 기관과의 연계를 이용한다면 학생들의 일탈행동을 훨씬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04.04.18)

● '수업평가' 교단신뢰 높여

교수법 점검 등 순기능 많아...도입 확산 기미

학교에 대한 학생·학부모 불만의 핵심에는 수업의 품질이 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를 보면, '교사들이 모든 학생에게 관심을 기울이는가', '학생에게 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는가', '교사가 학생의 학습을 잘 돕는가' 등의 질문 항목에서 우리나라는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곧잘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평가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지만 주제의 민감성 탓에 아직은 잠복 단계다.

그러나 교사 평가까지는 아니지만 학생들에 의한 수업 평가는 점점 싹이 트고 있다. 수업평가는 교사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시도하다 2000년에는 좋은교사운동이 '수업평가받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흐름 속에 전남 장흥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아예 수업 진단(교실 진단)을 제도화했다. 이는 수업의 어떤 부분이 왜 문제인지를 학생들한테 평가받아 피드백하는 절차나 방법을 말한다. 교사에게는 교수·학습의 질을 높이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의 교수법을 고치는 효과를 가져온다. 더불어 학생들에게도 적극적 학습 참여, 학습법 점검, 학습공동체 인식 제고, 학습결손 파악·보충 등의 순기능이 있다.

장흥교육청이 제시하는 기법은 이해 진단, 학습자 반응 진단, 문제해결능력 진단 등 아주 구체적이어서 82개나 된다. 예를 들면,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기'에 대한 진단의 경우 학생들에게 미리 "봉건사회 성립 배경을 가르치고 난 뒤 이를 너희들이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예고한다. 역시 수업 뒤에 학생들의 설명을 들어보고 혼란, 적절, 우수 등으로 분류해 혼란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점검하고 원인을 분석한다. 이어 해당 학생들에게 "수업의 어떤 점 때문에 봉건사회 성립 배경을 배우고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지 못했는지"를 묻거나 적어내도록 한다. 그럼으로써 수업을 잘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이들이 수업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무엇을 고쳐야 할지 등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윤기선 교육장은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학생들이 배운 게 없다면 가르친 것이 아니다"라며 "학생에게서 정기적으로 수업을 진단받아 개선한다면 신뢰받는 교실로 한걸음 나

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4.01.19)

☞ **고교생 53% “0교시 효과없다”**

전교조 경북지부 조사

경북도교육청과 전교조 경북지부가 0교시 수업과 보충수업, 휴일 자율학습 문제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 고교생의 절반 이상은 '0교시 수업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교조 경북지부가 지난 3~4일 경북도내 고교 34곳의 고교생 5258명과 교사 565명을 상대로 '0교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 학생의 53%가 '수업 효과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효과가 크다'는 학생은 2%, '조금 있다'는 학생은 11%에 그쳤다.

'학생 본인의 0교시 수업 태도'를 묻는 질문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는 학생이 35%로 가장 많았고, '잠이 부족해서 잔다'는 학생도 26%나 됐다. '진지하게 수업을 듣는다'는 학생은 16%에 머물렀다.

교사들은 0교시 수업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31%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고, 36%는 '효과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날 휴일인 5일에도 경북 지역의 일부 고3 학생들은 학교 방침에 따라 모두 등교해 자율학습을 했다. 이날 자율학습을 한 고교는 포항의 포항고와 포항여고, 동지고, 영일고, 영신고 등 포항 지역 대부분 고교와 청도 이서고와 모계고, 영천 선화여고, 경산 경산여고와 문명고 등이다. (2004.05.05)

☞ **수준별 교육은 선진국서는 기본**

뉴질랜드 - 같은 등급서도 최대 4단계까지 세분화

스웨덴 - 학생·학부모·교사 3자대면 통해 분반

교육 선진국들은 같은 학교에서 학력수준이 다른 학생들에 대한 수준별 교육을 공교육의 기본서비스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지난 2000년 선진국 15살 학생의 학력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했던 뉴질랜드의 수준별 수업은 같은 과목 또는 같은 학년 안에서도 등급을 나눠 각각의 실력에 맞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모든 과목은 수준에 따라 초등학교에선 1~7등급(간혹 8등급)으로 나뉘고, 중학교는 보통 3~4등급까지, 그 이상 수준의 교육은 칼리지(고등학교)에서 이뤄진다. 이는 국가가 정한 것으로 모든 학교에서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학생들은 같은 등급에서도 최고 4단계까지 수준이 세분화되는데, 만약 많은 학생들이 2단계에 몰려 있다면 2단계 학생들의 실력을

기준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다만 그 밖의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더 잘할 수 있도록 교사가 교재를 따로 만들어 주고, 진척도를 수시로 점검하는 식으로 배려한다. 또 중학생이면서 5~7등급을 소화하는 우수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영재학교에 가서 그 수준에 맞는 수업을 받은 뒤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

스웨덴은 뒤쳐지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6학년까지 보조교사들이 교실에 들어와 개별지도하고 여기서도 따라가지 못할 경우 보조교사들이 학생을 따로 모아서 지도한다. 7~9학년 때는 언어와 수학, 과학 과목에 한해 반을 나눠 수준별 수업을 실시한다. 특이한 점은 분반이 지필 시험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삼자대면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이다. 우리 초·중교에 해당하는 이 나라 기초학교에서는 1년에 두 차례 학부모와 학생, 담임교사가 반드시 만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 학년인 9학년이 되면 유급자가 정해지는데 이 역시 삼자대면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또 기초학교에서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있는 자율학습 시간이 특정 과목에 열등한 학생들을 위한 보충 지도 용도로 활용되기도 한다.

스웨덴 스톡홀름 소재 기초학교 교사인 동포 한인숙씨는 "수준별 수업에 대해 학생들이 권리로 생각하고, 스스로 도움을 요청해오기 때문에 위화감 조성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고교의 경우는 대개 프로그램이나 과정을 선택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선택 과목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준별 교육이 실현된다.

캐나다에서는 같은 학교 안에 대학반과 전문대학반 그리고 취업반이 나란히 개설돼 있어 학업 성취도에 따라 취업반에서 전문대학반으로, 혹은 전문대학반에서 대학반으로 옮길 수 있다. (2004.01.18)

☞ **학교 배려 부족, 학생 생리때 '출로 진통제'**

"생리결석·조퇴 인정율" 66%

초·중·고 여학생들 상당수가 생리 때마다 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데도, 생리에 대한 학교나 교육당국의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 여성위원회가 지난달 1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초·중·고 여학생 1265명을 대상으로 '여학생의 생리와 학교생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생리 때 학생들은 '복통을 느낀다'(64.4%), '움직이기 싫다'(57%), '요통을 느낀다'(45%), '눕고 싶어진다'(35%), '생리혈이 새어나와 힘들었다'(31.5%), '잠이 쏟아진다'(20.5%), '어지럼증이 있다'(17.1%) 등의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초등학교생의 12.1%, 중학생의 27%, 고등학생의 47.8%가 생리통이 '참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다'고 대답해 상급생으로 올라갈수록 생리통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이렇게 생리 때 고통을 겪는데도 학교에서 생리대 구입이 가능한 경우는 38%에 불과했고, 학교 화장실에 온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85.2%, 화장실에 화장지가 비치돼 있지 않

은 비율이 64%로 나와 생리문제에 대한 학교의 배려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이 진통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초등학생의 26%, 중학생의 41.6%, 고등학생의 63.2%가 '복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생리결석 인정'(40.2%)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고, 다음으로 '조퇴'(25.7%), '보건실에서의 휴식'(19.4%), '찜질팩 이용'(3.4%) 등을 들었다. 진영옥 전교조 여성 위원장은 "생리로 인한 결석·조퇴 등에 대해서는 생활기록부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공결로 인정하고, 학교 보건실에는 침대수를 늘리고 온돌이나 찜질팩 등 생리통을 완화할 수 있는 설비를 충분히 확보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2004.05.11)

● '선택' 폭넓어 자기주도적 학습 저절로

“교사 재량권 100%”

공교육에 희망을 3부 「외국에서 배운다」: ① 핀란드·스웨덴

지난달 찾은 핀란드 수도 헬싱키 북쪽 반타 지역의 소툰키 고교 교실 풍경은 우리와 사뭇 달랐다. 생물 시간이었지만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이 뒤섞여 있었고, 학생들은 교사가 지정한 20개 과제의 답을 찾기 위해 팀별로 인터넷을 열심히 뒤지고 있었다. 3학년생인 미가는 “생물 과목의 6개 과정 가운데 필수 2과정을 듣고 선택 4개 과정 가운데 2번 째를 듣고 있다”고 밝혔다. 핀란드 고교유도 챔피언이기도 한 이 학교 3학년생은 “고교에서 이수해야 하는 75개 과정 가운데 17개 과정을 스포츠 과목으로 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부터 우리도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7차 교육과정에 돌입했지만 아직은 교사와 시설 부족 등으로 걸음마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의 실질적 과목 선택권은 1~2과목으로 제한됐고 대부분은 학교와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정하고 있다. 고교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자신이 배울 수 있는 과목과 교육과정을 택하도록 하고 있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사례는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를 시사한다.

40%가 선택과목 / 초등과 중학교에서 엄격한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핀란드는 고교 단계에서는 일반고와 실업고로 분리해 학생을 선발한다. 일반고는 3년 단위의 학제이지만 우리와 같이 학년 개념은 없다. 1년이 4~5개의 학기로 나뉘고 학생들은 각 학기당 대개 5~6개 과정을 선택한다. 3년 동안 75개의 과정을 마쳐야 하는데 필수 과정은 45개에 불과하다. 40%에 해당하는 35개의 과정은 관심 영역의 과목을 집중 선택해 들을 수 있다. 사립고인 헬싱키의 헬싱인 수오말라이넨 이텔리스콜루 고교는 아이들이 이수해야 하는 75과정의 5배가 넘는 380개의 과정을 개설해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수학과 언어에 중점을 두고 가르치는 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수학 과정은 17개나 된다. 이렇게 과정을 세분화해서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자연스레 심화형 과정은 학급당 학생수가 20명 이하로 내려가면

서 밀도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이 나라 고교에서 이른바 수월성 교육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핀란드나 스웨덴 학교의 모국어 수업이 대체로 그 학교의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서가에 꽂힌 책과 인터넷 검색 등의 도구를 사용해 이뤄질 수 있는 것도 역시 같은 이유에서다. 아울러 핀란드의 고교가 가르치는 과목수는 대개 20개 정도이며 이 가운데 학생들이 실제 배우는 과목은 평균 14~15개라는 게 안나리사 알란코 교장의 설명이다.

프로그램 선택해 고교 입학 / 대표적인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스웨덴의 고교에서는 학생들이 아예 17개의 프로그램 가운데 한개를 선택해 입학한다. 스웨덴은 지난 95년부터 그때까지 분리되어 있던 실업과 인문계 교육을 한 학교에서 3년 동안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한마디로 고교 통폐합인 셈이다. 이전에는 2년제가 많았던 실업계 교육 대상 학생에게도 대학 입학자격을 갖추 수 있는 지식 교육을 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학생과 국가 경쟁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명분이었다. 이렇게 인문 실업계 구분 없이 학교를 통합시켜 놓은 대신 스웨덴 교육 당국은 학생들이 고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17개나 마련했다. 호텔과 식당, 언론, 전기공학, 에너지, 공예, 요리, 보건, 유아교육 등 대부분이 고교 졸업 뒤 구직을 염두에 둔 프로그램들이며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등 몇몇 만이 대학진학용 프로그램이다. 이를 보면 스웨덴의 고교 통폐합이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고교 과정에서 집중 수강하는 데는 하등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다른 과정의 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가르키는 게 공동체 통합에 기여함은 물론 학생들의 학문적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다.

학생들이 속한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만 우리의 국민공통교육과정 처럼 영어, 예술, 체육과 보건, 수학, 일반과학, 스웨덴어와 종교, 민주시민론 등 모두 8개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각 프로그램별로도 학생들의 세부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17개 프로그램을 합해 전공 과목 학점이 1450학점이며 이 가운데 모두 300학점을 학생들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에 갈 생각이 없는 학생들에게 입시과목을 가르치는데 대해선 찬반양론이 있으나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편이다.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오바 고교의 프로그램 상담 교사인 유디스 니베리는 “실기에 재능있는 아이들이 일반과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지만 고교에서 배운 근본지식을 일터나 대학에 가서 활용할 가능성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업계 프로그램 선택 학생이 이론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을 때는 졸업은 시키지만 대학 입학 자격은 얻지 못한다. 스웨덴 학교개발청의 이아 엔발 국장은 “통합교육에 대한 개선 보다는 현재 17개로 세분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8~10개 정도로 줄이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학습부진아는 고교 4년 다녀 / 스웨덴 고교의 프로그램 가운데는 고교 수학이 정상적으로 불

가능할 정도의 학습 부진아를 위한 4년제의 '개별화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게 눈에 띈다. 고교 입학에 위한 최소 내신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학생들은 일단 입학은 시키지만 '0학년'으로 분류해 고교 수학에 필요한 기초과목 지도에 집중한다.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은 고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며, 0학년을 마친 뒤에도 가망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도탈락하게 된다. 이 나라 대학 입시에서는 고교의 내신 성적이 결정적인 구실을 하는 데 프로그램별 교육 체계를 보면 수공을 하게 된다. 학생들이 고교 단계에서 대체로 진로를 구체화하기 때문에 대학의 학과와 연계되는 세부 과목의 이수 여부와 성적이 대입의 결정적인 전형요소로 활용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다. 내신이 되는 고교의 과목 평가는 지원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낙제를 제외하면 보통과 우수, 매우 우수 등 세단계로 구분되며, 대학은 고교 내신과 함께 선택적으로 수능 점수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면접은 전형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2004.01.26)

☛ 정치, 애들은 몰라도 돼?

총선교육 이렇게 하세요

“친구들에게 슬쩍 짜장면과 떡볶이를 돌리는 아이도 있다더라고요.”

서울 용산선관위 양재술 계장의 초등학교 선거에 대한 귀뜸이다.

양 과장은 매년 3월과 9월이면 쏟아지는 학교들의 학생회장 선거에 지원을 나가고 있다. 선관위는 학교에서 신청이 오면 선거장비와 선거관리를 지원해 주고, 요청이 있을 경우 '깨끗한 선거'에 대한 강연도 하고 있다. 양 과장에 따르면 초등학교 선거는 비교적 깨끗하게 치러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요즘 아이들은 텔레비전과 신문에서 많이 봐서 알 건 다 알고 있어요. 돈세탁이 뭔지, 금품살포가 뭔지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깨끗한 선거를 치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선거가 왜 중요하며, 자신의 깨끗한 한표가 왜 소중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민주시민의식 교육이 시급합니다.”

정치인들인 왜 싸워요?

“...”

「선진국선 별도과목으로 우리는 사회수업 일부로 정치교육 미흡 무관심 초래
반장·학생회장 선거 인기투표·점수 따기 넘어서 민주주의 산교육 기회로
학생 자치 공간도 시급」

웬만한 학부모라면 아이가 텔레비전에 중계되는 정쟁 모습을 보며 “아빠, 저 아저씨들은 왜 싸워”라는 질문에 뜨끔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보통은 “그냥 세력싸움 하는 거야”라든지 “너는 아직 몰라도 돼”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그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정치혐오증을 갖

게 하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정치교육은 아주 미흡한 편이다. 정치를 독립된 과목으로 배우는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한다면 사회과 수업의 일부로 대강만 짚고 넘어간다. 따로 활용할 만한 자료도 많지 않다. 하지만 정치는 우리의 생활 전반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정치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올바른 정치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지금은 학생회장 선거가 잇따라 열리고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정치교육에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 '정치는 부정적인 것'이라는 인식보다는 정치가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행위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정치교육은 선거교육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반장 선거나 학생회장 선거는 학생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학급이나 학교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진 아이들을 후보로 추천하고, 후보로 나선 학생들이 당당하게 유세를 벌이고, 학생들이 자신의 이익과 학급·학교 전체의 이익을 조화시켜 후보를 선택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를 몸으로 익히는 학습과정이다. 학교 현실은 투표가 인기투표 형식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고 수행평가 점수따기 방법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다. '공부시간 빼앗긴다'며 부모가 반장을 고사하는 때도 있다. 서울 중앙고등학교 신성우 교사는 “선생님 심부름하는 아이를 뽑기보다는 학급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학생을 뽑는 것을 고민하는 것 만으로도 정치교육의 훌륭한 출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정치 행위를 뒷받침 하려면 학생자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학생들이 직접 뽑은 임원들이 학칙을 정하고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자신의 한 표가 변화를 일궈낼 수 있다는 능동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이런 면에서 2002~2003년 민주시민교육시범학교로 운영된 서울 용강중학교의 사례는 긍정적이다. 용강중학교는 학생들의 용의복장에 대한 규정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는다, 옆머리는 귀에 닿지 않는다,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으며 스포츠형'이라는 남학생 용의규정을 '앞머리는 눈썹까지, 옆머리는 귀 바로 위까지 허용한다'로,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는다, 긴 머리의 경우 귀 밑 3cm 이내의 단발이나 커트 형으로 한다'는 여학생 용의규정을 '머리는 풀었을 때 귀 밑 10cm로 제한하고 그 길이가 넘으면 머리를 묶는다. 묶은 머리는 15cm 이내로 한다'로 바꿨다. 용의복장 위반자는 3월 301명에서 규정을 바꾼 9월에는 44명으로 줄었다. 이렇게 자신의 의사표시가 환경을 바꾸는 경험을 한 학생들은 정치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의 의사표시에 더 적극적으로 되기 마련이다.

총선을 맞아 모의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중인 간디학교의 손진근 교사는 “정치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은 선거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회에 나간 뒤로도 자신을 둘러싼 사회환경을 바꿔 나가는 데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양한 경험을 통한 정치교육은 건전한 민주시민을 만들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2004.03.14)

☞ 교사 75% “학생 자율학습은 타율학습”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율학습이 대부분학생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효과에 대해서도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절반이상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EBS 수능 강의를 수능에 반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학생의 경우 찬성과 반대의견이 거의 비슷했으나 교사들은 학교교육 파행의 원인이 된다고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이같은 사실은 전교조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교사1천106명, 고교생 1천306명, 학부모 921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드러났다.

9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자율학습 선택권이 학생들에게 있는냐는 질문에 75.3%의 교사가 ‘형식적 절차만 거치고 사실상 강제적’이라고 답했으며 ‘선택권이 보장됐다’는 응답은 17.4%에 그쳤다.

같은 질문에 학생들은 ‘사실상 강제적이며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가 88.1%에 달했고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응답은 11.9% 불과했다.

EBS 강의를 수능시험과 연계시키는 방침에 대해 교사 60.1%는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이끄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9.9%는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있고 학교교육에도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학생들은 ‘사교육비를 줄여주므로 찬성’이 47.9%, ‘학생들의 부담만 늘이므로 반대한다’가 52.1%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정부의 대책으로 사교육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교사 41.5%는 ‘줄어 들 것이다’고 답했으며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50.1%였다.

같은 질문에 학생들은 ‘그저 그렇다’가 51.95, ‘오히려 늘어난다’가 19.7% 에 달해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줄어 든다’는 28.4%에 그쳤다.

학부모들도 같은 질문에 ‘그저 그렇다’(49.2%)와 ‘오히려 증가’(12.2%)가 감소(38.6%) 보다 많았다.

금지된 0교시를 실시하고 있는냐는 질문에 학생 77.5%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오후 보충수업에 대해서는 93.8%가 ‘실시한다’고 응답,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보충수업을 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관계자는 “자율보충수업이 강제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해서도 학생 17.5%만이 효과가 크다고 답할 정도로 부실한 정책”이라며 “수능의 자격고사화, 국공립대 통합전형 등의 대책으로 사교육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04.05.09)

☞ 학운위 ‘학부모7+교사3+학생2’

민주적인 학교운영 제도

덴마크 교육제도를 관통하는 중요한 정신 중의 하나는 민주주의이다. 프리스쿨뿐만 아니라 공립학교에서도 학부모와 학생의 민주적인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다.

특히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권리가 폭넓게 인정된다. 공립인 칼 닐센 초·중등학교 이레네 라르센 교감은 “학부모가 학교의 모든 일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고 말했다. 이는 학교 재정과 교육활동, 규정 제정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의사결정권을 지닌 학교운영위원회의 인적 구성만 봐도 알 수 있다. 학운위는 교장을 포함해 모두 12명으로 구성되는데, 학부모가 7명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이밖에 교사 2명과 학생 2명이 참여한다. 의장은 당연히 학부모 위원 중 한 명이 맡게 된다. 투표로 학교 일을 결정해야 될 경우, 교장은 투표권이 없다. 교장은 학운위의 의사결정 과정을 돕는 비서 구실을 할 뿐이다. 그러나 학운위의 결정 사항이 법에 위배된다고 생각될 때에는, 교장이 교육당국에 탄원을 할 수 있다. 학부모의 사적인 관심에 학교가 흔들리는 것을 막는 장치인 셈이다. 학교 의사결정에는 학생들도 참여한다. 5~9학년의 모든 학급에서 2명씩을 선출해 학생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학생위원회에서 학운위에 참여할 학생 대표 2명을 뽑는다.

교장 선출과정도 마찬가지다. 프리스쿨과 공립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운위에서 모집 공고를 한 뒤, 면접을 통해 교장을 채용한다. 지금까지는 자격 제한이 없어 누구든지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교육행정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교장이 될 수 있다. 교장들은 대부분 임기 동안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 베스트핀스 김나지움 카이 너르홀름 교장은 “교장이 학생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교장도 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나의 경우, 일주일에 3시간 정도 음악 수업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2004.02.15)

☞ 치마만 입고는 추운걸요

‘체육복 덧입기’ 유행 교복으론 너무 불편 여학생들 자구책...
“교복만·치마만 입어라” 획일성 교육이 부른 ‘일탈’

요즘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체육복은 더 이상 체육시간에만 입는 옷이 아니다. 교실과 복도에서 교복 치마 대신 체육복 바지를 입은 학생을 쉽게 볼 수 있다. 또 교복 치마 안에 체육복 바지를 끼입거나 교복 블라우스 위에 체육복 상의를 덧입기도 한다. 교실에 들어가 보면 여학생의 30~40% 이상이 체육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체육복을 입고 있다. 외모나 패션에 민감한 중·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체육복 패션'이 유행하는 이유는 뭘까

체육복이 교복보다 편하기 때문이다. 남녀 공학인 사고등학교 2학년 김아무개(18)양은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학교에 있어야 하는데 교복을 입고 있으려면 너무 불편하다"며 "체육복이 교복보다 훨씬 편해 주로 체육복을 입는다"고 말했다. 김양의 말처럼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생활하고, 중학생 역시 하루에 8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 이런 학생들에게 정장 스타일의 교복은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특히 여학생들은 교복 하의가 치마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한 상태로 생활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학생들은 교복보다 좀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옷차림으로 체육복을 찾게 된 것이다.

'체육복 패션'은 추위를 막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사고등학교 1학년 정아무개(17)양은 "내 자리는 창가라서 온풍기를 틀어도 춥기 때문에 치마 안에 체육복을 끼입고 있을 때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온풍기가 교실 전체를 균일하게 데우지 못해, 자리마다 기온 차이가 나고 상대적으로 찬 공기가 바닥에 깔리기 때문에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이 더 추위를 타는 것이 사실이다. 또 사람마다 추위를 타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도 교복 바지 안에 내복을 입을 수 있는 남학생들과 달리 치마를 입은 여학생의 경우 스타킹을 한 두겹 끼입는 것 이외에 별다른 보온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날씨가 쌀쌀해지면 체육복을 덧입는 학생 수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체육복보다 더 편하고 따뜻한 옷이 있는데도 학생들이 체육복을 입는 이유는 학교 교칙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동절기에도 교복에 코트를 덧입는 정도만 허락하고 있다. 이마저도 실내에서는 벗도록 되어 있다. 일부 학교에서 지정된 가디건이나 조끼를 허락하고 있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사실 체육복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체육시간에만 입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규정에 맞는 복장을 갖춰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암묵적으로 이를 허락하고 있다. 학생들은 편리하고 따뜻한 학교생활보다 정형화된 모습을 중요시하는 학교 교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육복을 입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학생들은 편리함, 보온성 등 여러 사정 때문에 교복 대신 체육복을 입거나 교복에 체육복을 덧입고 있다. 이런 점에서 '체육복 패션'은 학생들의 개성 표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학교의 획일성 추구의 결과이기도 하다. 양성평등을 가르치면서 여학생들은 치마만 입으라고 하고, 효율성과 개성을 강조하면서 학교에서는 교복만 입으라고 규정하는 것은 모순이다. (2004.01.04)

● 사교육비 경감 세부지침 - 0교시 수업 사라진다

사교육비 경감대책 세부지침 :

밤 10시 이후도 금지·강제 자습 강력제재

보충수업비 과목당 2만~3만 5000원 권고

앞으로 서울시내 중·고교에서는 어떤 명목으로든 오전 8시 이전과 밤 10시 이후의 학습이 금지된다. 보충수업은 하루 2시간 안팎으로 편성하되 수강료는 과목당 2만~3만5천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사교육비경감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세부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다른 15개 교육청도 곧 이에 준하는 지침을 밝힐 예정이어서 전국의 중고교에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강제 보충·자율학습 엄벌 / 보충수업은 교사나 강사가 학원에서처럼 여러 수준에 걸쳐 다양한 과목의 강좌를 개설하면 학생이 이를 선택해서 듣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교재는 강사가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존 참고서도 사용할 수 있다. 하루 보충수업은 2시간 안팎에 과목당 2만~3만5천원을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방송을 시청하는 보충수업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수강료를 받아서는 안된다. 보충수업이 끝나면 학생들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는 자율학습을 밤 10시까지 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특히 오전 8시 이전의 0교시수업, 강제 보충수업, 강제 자율학습, 밤 10시 이후 학습 등이 적발되면 지원금 삭감 등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수준별 정규수업은 영어·수학 위주 / 수준별 정규수업은 일단 영어·수학과목에 한해 실시하고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반을 나누는 방법은 학생들을 2~3단계로 가르친 뒤 영어·수학시간마다 이동수업을 하도록 하거나 일주일에 1~2일만 이동수업 단원을 마칠 때마다 이동수업을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국어·사회·과학 등은 반을 나눠 이동수업을 하기보다는 학급 안에서 분단별로 학생을 나눈 뒤, 예를 들면 50분 가운데 30분은 공동수업, 20분은 분단별 과제수업 등의 방식을 쓰도록 했다. 또 제2외국어 등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한 과목을 위해 거점학교를 지정하고 학습부진아를 위한 특별보충과정도 방과후·방학중에 편성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교육방송 시청 지도 / 교육방송을 정규수업 시간에 시청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다. 대신 학생들에게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사전에 예고해줘 시청률을 높이는 한편, 못본 학생들

을 위해 학교마다 텔레비전·인터넷망을 갖춘 학습정보실을 설치하고 교육방송 동영상 시디도 각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과별 모니터링 교사를 위촉해 학생들이 놓칠지 모를 학습포인트를 지적해주도록 했다. 교육방송 강의 내용을 고3 모의고사인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학교에 '사회복지사' 배치

학교폭력·가정문제 등

교육부, 상담교사로 해결

주로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돌보던 사회복지사가 학교에도 배치된다.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으로 학생·교사·교장 등이 잇따라 자살하고, 중학생이 어머니의 주검과 함께 전기·가스가 끊긴 셋방에서 6개월을 살아도 모르는 학교복지의 허점을 고치기 위해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학생들의 고민을 상담·해결하고 학교·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학교별로 또는 몇개 학교를 묶어 1명씩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는 일단 전국 48개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직에 1급 사회복지사를 시범적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최근 16개 시·도 교육청에 교육청별로 초·중·고교 1곳씩을 선정해 추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시범학교에는 다음달 1일부터 1년 동안 사회복지사가 배치돼 계약직(기간제) 상담교사로 일하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연구사업을 통해 담임교사와의 역할비교, 생활지도의 효과, 부적응학생이나 보호·선도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가정·학교·사회의 연계지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문상담교사의 구실을 정립한 뒤 내년부터 사회복지사·보건교사·특수교사·상담가 등을 전문상담교사로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제 우리나라 학교에도 학교폭력·부적응의 문제를 개인·학교·가정·지역이 연계해 예방하고 해결하는 '학교사회사업'의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지난 1월 제정됨에 따라 곧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기획위 설치 예방교육 의무적 실시 교원의 신고 의무화 가해·피해 학생 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안)을 만들어 오는 14일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2004.04.11)

☛ 중·고교생 43% '왕따 유사 피해'

중·고교생의 절반 가까이가 '왕따' 또는 비슷한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절반 이상이 주변에서 왕따 피해자를 보더라도 그냥 내버려둔다고 답해 주변의 무관심이 왕따 문제를 악화시키는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커뮤니티 사이트 다모임(damoim.net)에 따르면 최근 전국 중·고교생 10대회원 1만46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15.5%, '왕따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것을 당했다'는 중·고교생은 28.3%로, 왕따 또는 그에 준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자가 43.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위에 왕따를 당한 사람이 생길 경우 '그가 자초한 일이므로 내버려둔다'는 학생이 33.8%로 가장 많았고, '뉘고 싶지만 남의 일이므로 무시한다'는 답도 22.6%로 전체 응답자의 56.4%가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같이 괴롭힌다'는 학생도 9.1%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무조건 도와준다'는 답은 16.1%에 지나지 않아 주변의 방관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떤 학생들이 왕따를 당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알미울 정도로 잘난 체 하는 경우'가 45.8%, '힘있는 학생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23.4%, '늘 의기소침하고 앞보이게 행동하는 경우' 21.6% 등의 순서로 답변했다. (2004.02.24)

☛ "사랑의 회초리라는 폭력 학교체벌 100% 금지해야"

가수 신해철 법 추진·카페 개설

가수 신해철씨가 '체벌금지법 추진모임' 인터넷 카페를 열고 체벌금지법 추진에 나섰다. 신씨는 22일 새벽 자신이 진행하는 <문화방송> 에프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교사에 의해 학생에게 자행되는 무차별 폭력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아무런 원리·원칙없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지만 사회적 이슈로 잠깐 불거졌다 사라진다"며 "체벌은 법률적으로 100%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이달 초 경기 수원시 학고등학교 교사가 여학생을 심하게 폭행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 인터넷에 떠돈 사건을 언급하면서, "교사와 학생이라는 설명을 붙이지 않는다면 폭력 소설 못지 않는 장면이 대한민국 교실에서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신씨는 이날 인터넷 포털 '다음'에 "신체적 체벌을 완전히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체벌금지법 추진모임' 카페(<http://cafe.daum.net/nopunish>)를 열었다. 이 카페에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7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체벌 수기'게시판에는 체벌 경험담이 100건 가까이 올라왔다. (2004.04.22)

청소년의 놀권리와 문화적 권리

김 판 중
(청소년문화공동체 '봄')

청소년의 놀 권리와 문화적 권리

날라리 자퇴생 판

INTRO : 놀 권리? 그런 단어가 있어?

놀 권리?? 놀 권리라는 단어가 있다는 게 참 슬픈 현실이다. 왜? 놀 권리란 단어 자체는 말이 안되는 단어니까... 사람이 논다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사랑, 성적욕구, 음식을 먹고싶은 욕구, 잠을 자고싶은 욕구 등과 같은 생리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잃어버리지 않는 놀이 욕구가 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짧은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는 성장하고 나면 더 이상 장난을 치지 않는다. 동물의 왕이라고 일컫는 사자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단 사냥이 끝나고 나면 배불리 먹고 긴 수면을 취할 뿐 별다른 즐길 거리를 찾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은 삶의 전 과정을 통해 연령에 적합한 놀거리를 끊임없이 고민한다. 사람은 생각하거나 무엇을 만드는 존재 그 이상으로 놀이를 찾아 즐긴다는 점에서 동물과 차별성을 갖는다. 인간은 놀이하 는 존재인 것이다.

고대 원시사회에서는 공동노동에 기초한 생활이었기에 생활과 놀이가 일치되어 있었다. 삶이 곧 놀이요 놀이가 곧 삶이었다. 놀이는 노동에서 오는 피로, 서로간의 갈등, 자연의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일과 함께 있었다. 예를 들면 노동의 공동체적 성격은 놀이의 공동체적 성격을 나타내게 된다. 절기마다 대동놀이가 행해 졌으며 그 대동놀이는 공동노동에 의한 자연스런 결과물이었다.

인간의 놀이가 동물의 놀이와 다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과 놀이가 결부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생산량이 점차 늘고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논다는 것은 곧 퇴보를 의미하게 되었다. 사회에서 놀이의 기회를 만들어 줄 때는 대량으로 생산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놀이를 소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까지 했다. 순수하게 한국적인 입장에서 놀이의 역사를 보자면 일제강점기를 빼놓을 수 없다. 일제는 무력을 동원해가면서 우리 민중들의 공동놀이를 탄압하였다. 장기치기 등의 패놀이가 벌어졌을 때에는 일경들이 총칼로 막을 수 없어서 대포를 쏘아 해산시킬 정

도였다고 한다. 한편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미군이 들어오고 나서는 미국의 저속한 놀이문화가 들어왔다. 예를 들면 나이트클럽, 오락기, TV스포츠 중계 등이 상업주의와 결합하여 이름하여 '놀이 상품화시대'를 열었다.

TRACK 1. 우리 요즘 이렇게 논다.....휴.....

요즘 청소년들이 모였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마 “아...오늘 뭐하고 놀지...” 일 것이다. 이 말도 평소에는 꿈도 못 꾸는 말이다. 운이 좋게 개교 기념일이거나 빨간날 이거나 스승의 날 등 학교가 일찍 끝나는 특별한날에나 겨우 할 수 있는 말일 것이다. 좋다 이렇게 하루라도 학교나 학원, 시험공부 등의 제약에서 벗어난 날 우리는 무엇을 하며 놀고있을까?

단연 1위는 노래방, 2위는 PC방, 3위는 호프집일 것이다. 그밖에도 당구장, 풀스방, 오락실 등 모두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소비 문화적인 공간들이다. 물론 가끔 정말 가고싶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할 일이 없어서, 시간 때울려고, 놀꺼리가 없어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조금이나마 자유롭게 돈 들이지 않고 놀 수 있도록 각 지역마다 한 개씩 지어놓은 청소년 수련관들은 과연 잘 굴러가고 있느냐...

정부에서는 건물과 시설만 딱 지어주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 운영비를 만들어야하는 수련관은 정작 시설을 사용해야하는 청소년들은 사용을 자유롭게 못하고 주부수영교실이나 검도 교실 등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시설을 남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수련관에서 근무하는 어른들도 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지원보다는 위에 잘 보이기 위한 실적이나 운영금 마련에 급급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또한 정부에서 매년 지원하는 '유스챔피언!' 라는 대회가 있다. 이는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즐기고 놀 수 있는 마당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진행되는 행사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 청소년들이와~정말 우리들만의 축제야! 하며 즐겁게 다같이 자유롭게 노는 마당일까? 먼저 한쪽 편에 심사위원들이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축제에 참가하는 동아리들은 모두

상기된 얼굴로 심사위원들에게 잘 보이려는 행동들을 하며 만에 하나 준비한 것이 틀리거나 않을까 하며 조바심을 내며 공연을 한다. 이 모습을 보는 청소년들은 어떨까? 모두들 즐기고 노는것은 뒷전이고 이 동아리가 잘하나 저 동아리가 잘하나 유심히 보기만 한다. 이게 과연 축제인가? 정말 결과주의적인 문화의 산물이 아닐까 싶다. 이런 현실 속에 우리청소년들은 언제나 “오늘 뭐하고 놀지.....” 라는 말을 달고 산다.

TRACK 2. 왜 이렇게 놀지.....

우리 청소년들은 왜 자유롭게 놀 수 없을까? 왜 노는 것이 타락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왜 기성세대들은 우리가 노는걸 비행이라고만 생각하게 되었을까? 각각의 원인을 찾아보자. 가장 기본적인 원인에는 청소년과 기성세대들간에 오해와 갈등이 있을 것이다.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이 노는 것을 비행으로만 보고 타락하는 지름길이라 말한다. 하지만 기성세대와 우린 다르다. 하지만 꼭 그렇다고 시대적인 차이에서 오해와 갈등이 빚어지는 거라고는 말할 수 없겠다. 우리도 어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는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건 분명하다 어른들은 우리에게 때가 있는 거라며 우린 공부만 해야하는 시기라고 말한다. 자기들은 공부도 했고 일도 했으니까 놀아도 된다고 말한다. 그건 “넌 잠자지마 넌 아직 잠잘 시기가 아니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다음으로 정말 근본적인 원인을 보자면 사회시스템 자체의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시스템 상 우린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서 취직을 해야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아니 요즘은 그것마저 힘든 상황이다. 그러니 논다는건 상상도 못할 일인 것이다. 사회는 우리에게 말한다. 놀고 싶으면 자기가 노력해서 돈 많이 벌어서 놀면 되지...라고 하지만 현실을 보라 죽어라 공부해서 일류대학 나와서 취직해서 돈벌 수 있는가? 또한 돈만 많이 번다고 해서 잘 놀수 있는 것인가? 결국은 상업적인 놀이만 하며 돈만 펄펄쓰란 얘기가 아닌가? 별다른 해결책을 주지도 못하면서 죽어라 노력해서 돈 벌으라고? 말이 되는가? 이것과 연관지어서 우리 청소년들을 보자 고등학교에 입학하게되면 항상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있다. “3년만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하자!” 그럼 그 후엔? 대학은 놀러가는건가? 공부는 고등

학교에서만 하나? 좋다 3년 동안 죽어라 공부했다고 치자 일류대학도 갔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취직해서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서 먹고살기도 힘든데 놀으라고? 이렇듯 우리나라의 모순된 사회시스템에서는 숨쉴 여유조차 없다.

TRACK 3. 하지만 우린.....놀아야만해!!!!

공부가 하기 싫어도 꼭 해야하는 일이라면 놀이는 자발적으로 추구하는 행동이다. 이러한 놀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어른들은 노는게 뭐가 남느냐 라고 말을 하지만 분명 남는게 있기 때문에 노는 것이다. 설사 남는게 없다하더라도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도 놀이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먼저 놀이는 우리에게 탈 일상적인 스트레스 해소와 자유 감을 준다. 대학입시의 무한경쟁 속에서 숨쉴 틈도 없는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즉 현실이 주는 괴로움과 압박감 등에서 벗어나 자유 감을 느낄 수 있다. 청소년들은 놀이의 부정적 긍정적 가치 이전에 재미있고 신나게 놀았다는 느낌이 더 중요하다. 놀이를 통한 탈 일상성의 짜릿한 경험이야말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공부로 인해 쌓였던 스트레스, 긴장, 불안, 욕구좌절, 불만 등을 해소시키고 일상으로의 적극적 회귀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렇듯 놀이는 청소년의 역동적 삶을 위한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놀이는 우리에게 공동체 의식의 경험을 준다. 가령 우리가 친구 4명과 모여 롯데월드를 간다고 치자. 이때에도 우리는 얼마씩을 들고 올 것이며 밥은 어떻게 할 것이며 몇 시에 모여서 어떻게 놀고 언제까지 놀 것인지에 대해서 까지 생각하게 된다. 이는 청소년들의 소속감육구와 사회교류육구를 충족시켜주기에 적절한 활동임에 틀림없을 뿐 더러 특히 청소년 시기에 개인적인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기 전에 집단 정체감을 경험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듯 청소년들은 놀이활동을 통해 또래들간의 공감대를 확인하면서 특유의 문화를 만들어나가게 된다. 이런 이유들이 있기에 우리는 놀아야한다. 청소년들이 노는 것을 비행이라고만 생각하고 퇴보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청소년들은 정말 청소년기에 배워야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그저 국어수학을 암기하는 기계로 어른이 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TRACK 4. 이젠 나부터 놀겠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놀지 못하는 가장 현실적인 원인은 놀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즉 대학입시의 무한 경쟁 속에 숨쉴 틈이 없다는 것이다. 수년동안 논의되어 왔던 문제지만 역시나 놀 권리에 있어서도 빠질 수 없는 것이 교육제도의 문제이다. 요즘에는 사교육비 경감이니 뭐니 하면서 그나마 쉴 틈이 있었던 방과후 시간도 빼앗아 야간자율학습을 시키기까지 한다. 그뿐인가? 야간자율학습을 하게되면 자연히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빼앗기는 것이다. 또한 선생들은 학교 외부적으로 청소년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무슨 죄인이나 되는 것처럼 몰아붙인다. 공부에나 신경 쓰라는 것이다. 선생이 아닌 다른 어른들의 인식 또한 위에서 말한 것처럼 노는 것이 곧 타락, 퇴보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런 많은 문제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항상 우리는 이 어떻게 라는 단어에서 막혔었다. 물론 판도 막힌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 판은 우리 청소년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들의 놀 권리는 누가 찾아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청소년인권 토론회나 그밖에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많은 행사들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토론회에 참가하면서 이렇게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써는 이런 자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이런 토론회 외에 우리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뭔가를 해볼 수는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떠올랐다. 우리는 현실에 너무 순응하며 살고있단 생각이 든다. 아니면 현실에 순응하며 살지 않은 청소년끼리 모여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가령 예를들어 청소년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에게 놀 권리를 달라고 외쳤다고 생각해보자. 당장 놀 권리가 뚝 떨어지는지는 않아도 분명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 단체간에 또는 지역의 여러 단체간의 네트워크가 먼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한다. 모두가 하나의 이상 점을 두고 각자 다른 일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면 같은 생각을 가진 단체들끼리도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판은 많은 단체간의 네트워크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답은 모르겠다. 다만 나부터 네트워크를 한다면 곧 단체간의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TRACK 5. 날라리들의 세상

원고를 쓰다가 문득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즐겁게 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하는 생각 이 들었다. '날라리들의 세상' 말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놀면서 삶의 전 과정을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게 된다. 학교에서는 즐겁게 놀면서 공부를 하고 학교가 끝나면 자기만의 놀꺼리를 찾아 신나게 논다. 부모님들 또한 즐겁게 놀면서 살아가고 아이들에게는 놀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차차 알려준다. 대학에서는 자기가 특별히 잘 노는 분야를 조금 더 깊게 배우며 자기의 특기놀이 분야를 어떻게 일과 결합시킬 것인가를 공부한다. 그러면서 어른이 되면 자기가 가장 즐겁게 잘 놀 수 있는 분야와 일이 결합된 일을 하며 즐겁게 놀면서 일을 한다. 이런 날라리들의 세상....언젠가는 오겠지?

OUT TRACK. 우리도 언젠가.....

일본에 취업 의욕도 없고 일도 하지 않는 이른바 니트(NEET)족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특히 19세의 경우 니트족은 젊은층 평균의 2배인 4%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교 졸업 뒤 취업이 어려워 아예 일자리 찾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로 부모에게 기생해 생활하고 있으며 현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1~2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곧 니트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며 글을 마친다.

우리에게 놀(문화를 누릴) '짬'과 놀(문화를 누릴)
'곳'과 놀(문화를 누릴) '감'은 있는가?

권태은 · 소세련 · 이효숙 (천안 월봉고)

고승재 · 김윤식 (천안 중앙고)

(청소년문화봉사공동체 '푸른이')

우리에게 놀(문화를 누릴) '짬'과 놀(문화를 누릴) '곳'과 놀(문화를 누릴) '감'은 있는가?

1. 천안 푸른이의 탄생과 속이야기

얼마 전 천안에 푸른이(청소년자율참여를 통해 청소년활동을 하는 청소년 모임)가 생겼다. 서울에 있는 푸른이 소개를 듣고 막연하게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천안에서 첫 모임을 갖기까지는 무척이나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했다. 모두들 관심은 있었지만 함께 모이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모으려면 시간이 나야하고 시간이 맞아야 하는데 우리에게서 그럴만한 “짬”을 내기가 정말 어려웠기 때문이다. 입시위주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뒷전에 두고 막연히 푸른이에 참여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우리는 2월이 되면서 모든 걱정을 뿌리치고 서울 푸른이와 함께 모이기로 결심을 하였다. 그렇게 결정은 하였지만 평일에는 정말 시간이 나지 않았고, 그래서 토요일 방과 후에 모이기로 했다(지금도 우리의 모임은 토요일 방과 후에 잠깐 모이는 것이 전부지요^^*).

“짬”은 만들었는데 그 다음은 우리가 모일 장소 “곳”이 쉽게 결정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여러 학교에서 참가한 우리들이 모일 장소는 그리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 푸른이의 소개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찾아보았으나 찾아가기에는 위치가 만만치 않았다. 그래도 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에 예약을 하고 모이기로 했다. 우리가 모일만한 장소 “곳”을 찾기도 “짬”을 내기만큼 어려웠고 모일만한 장소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그래서 현재는 주로 인터넷상의 공간에 모임의 장소를 마련하고 그 곳에서 주로 모이지요. 하지만 그곳에서는 모임 때와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답니다^^).

“짬”과 “곳”을 마련한 우리는 모였다(성공했지요). 그러나 방과 후 토요일 오후도 대부분 과외 등으로 인하여 3시간 이상을 할애하기가 어려웠지만, 우리는 짧은 시간

속에 5명이 모여 푸른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를 받았다. 푸른이 활동은 의미도 있으면서 재미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당일 천안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어떤 활동에 참여할지에 대한 논의를 했다. 즉 “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도 어려움은 많았다. 의미 없는 일회성 행사는 우리가 참여할 “감”에는 해당이 안되고, 우리가 마땅히 경험해본 꺼리들이 없었기에 우리 스스로 활동꺼리 “감”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결정하고 친구들에게 푸른이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정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놀(문화를 누릴) ‘짬’과 놀(문화를 누릴) ‘곳’과 놀(문화를 누릴) ‘감’을 찾기에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천안 푸른이의 활동

푸른이 활동을 소개받고 천안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내 생애 처음으로 나에게 대한 고민을 떠나 사회와 국가를 위해 고민하게 되었던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가 과연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실천하기로 하였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먼저 생각한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인 우리가 먼저 변하고, 친구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청소년의 변화를 생각했다. 이렇게 청소년들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행복해진다면 다음은 어른들의 자발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고 사회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찾아 올 것이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보았다. 그래서 찾은 것이 죽전원(장애인시설) 방문 봉사활동이었고, 캠페인을 통한 사회 참여 운동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종합적인 활동으로 제1회 천안 2004 청소년문화축제를 기획하였다. 축제하면 놀고먹고 즐기다 끝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좀더 의미 있는 일을 찾기 위해 축제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다. 그래서 이번 축제에는 다양한 행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스스로 준비한 포럼일 것이다. 청소년 스스로의 문제에 청소년인 우리가 먼저 다가가 보기 위해서 제1회 천안청소년포럼을 준비

했다. 바쁜 학교생활의 일정 중에 주말에 잠깐 만나고, 정팅(인터넷을 통한 의견 나눔) 등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어서 포럼을 준비했다. 포럼의 내용은 청소년의 주도하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와 청소년 문화환경과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우리들의 의식과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뒤에 자세한 사항은 발표를 통하여하도록 하겠다. 우리들의 축제는 계속되고 있다. 축제의 마지막은 5월 29일 있을 전문가들과의 심포지움이다. 아직 준비도 체계적으로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축제를 통하여 우리는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구체적인 활동을 갖고 6월을 맞게 될 것이다. 다양한 프로그램 그것은 6월부터 시작될 전국 푸른이 모임의 활동 실천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끼게 될 것이다.

청소년이라는 시기는 꿈도 많고, 배울 것도 많은 시기이지만 타인의 의지가 아닌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 열정도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 다음 자료는 우리가 조사한 청소년 의식 및 청소년 문화환경, 유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이다.

3. 천안 청소년 현장 의식 및 실태조사

우리는 과연 얼마나 놀(문화를 누릴) ‘짬’과 놀(문화를 누릴) ‘곳’과 놀(문화를 누릴) ‘감’을 갖고 청소년시기를 보내고 있는가? 얼마 전 놀 권리와 문화적 권리라는 주제를 접하고 아이들이 쓴 ‘세계인권선언’이라는 책을 손에 잡고 읽게 되었다. 그 중에서 놀 권리에 대한 글이 있어 여기에 적어본다. “사람은 누구나 휴식과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고 정기적인 휴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누구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일하도록 강요받아서 안된다. 누구에게나 휴식시간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지쳐 버릴 테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쉬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편집회의를 하는 도중 한국에서 온 교수가 우릴 방문했습니다. 그 분은 동아시아 지역의 교육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분의 말에 따르면,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여러 나라의 아이들에게는 놀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곳 아이들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8시까지 학교에 가서는 점심시간 20분을 제외하곤 4시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저녁 7시까지 2시간 동안 숙제를 하고 그런

후에는 밤 10시까지 과외나 학원에서 사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도 잠자기 전 1시간 동안 숙제를 더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TV를 보거나 자유시간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노는 방법을 모릅니다. 쉬는 방법도 모르지요. 이런 아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짐을 지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압력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자료 1> 여고2년 허망한 죽음...부모 "살인적 입시교육 때문에..."



‘무한 입시교육과 한 여고생의 죽음.’

10일 오후 광주 남구 진월동 C병원 영안실. 이날 새벽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장로사양(17·광주 D여고 2년)의 영정 앞에서 어머니(44)는 딸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 듯 오열했다. 장양은 9일 오후 10시 학교 자율학습을 마치고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학교 인근의 K학원으로 달려갔다. 10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야간 강의’를 듣기 위해서였다. 장양은 이어 밤 12시부터 10일 오전 2시까지 학원 강의실에서 부족한 공부를 보충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친구 3명과 함께 학원차량인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귀가하다 오전 2시15분경 광주 동구 수기동 우송가구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혼자 숨졌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1t 트럭이 좌회전

하는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은 것. 반에서 10등 안에 들었던 장양은 2학년이 되면서 학교 수업과 보충·자율학습이 끝나는 밤 10시부터 강의를 시작하는 학원 2곳에 등록했다. 월수금요일에는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K학원을 다녔고 화목토요일에는 시내의 입시학원에서 강의를 들었다. 새벽까지 학원에서 지내다 보니 장양의 수면시간은 많아야 4시간. 오전 6시반에 일어나 밤 한술 뜨고 7시에 집을 나서 다음날 오전 2시반에 들어오는 생활이 반복됐다. 일요일에는 오전 내내 부족한 잠을 보충한 뒤 오후에 책가방을 챙겨 들고 독서실로 갔다.

장양의 아버지(48)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우리 아이만 뒤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경쟁심과 입시 위주의 교육이 결국 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흐느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우리는 그동안 그저 학교공부만 공부이고 노는 것은 쓸데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리고 다른 것은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것으로 생각해왔다. 얼마 전 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 우리에게도 참 “짬”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료1. 참조>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전혀 놀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은 퇴폐적이고 향락적이며 퇴행적이거나 소비적인 나쁜 놀이에 빠져들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이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 되고 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러한 고민을 이번 천안에서 한 포럼의 내용을 갖고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사개요

○ 조사배경 및 목적

- 청소년 활동의 대안과 새로운 청소년 사회운동의 모델 마련
- 청소년 운동에 대한 실태 및 의식 조사
- 천안의 청소년문화환경에 대한 실태 및 의식 조사
- 천안의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실태 및 의식 조사

○ 조사기간 및 방법

- 조사기간 : 2004년 3월 6일 ~ 2004년 4월 10일
- 조사방법 : 면대면 면접조사

○ 조사대상

- 대상 : 천안 청소년(13세~18세)

구분	빈도	비고
중학생	142	
고등학생	514	
합계	656	

2) 청소년 의식 및 실태 조사

(1) 청소년과 사회변화

천안의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이 사회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변화가 가능하다 472명(72%), 불가능하다 65명(10%), 모르겠다 119(18%)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는 천안의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의 주도하에 사회변화가 가능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나누어 보면 전체를 기준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가능하다’라고 선택한 것이 전체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다 196명(36%), NGO활동을 통해서 134명(24%), 봉사를 통해서 89(16%), 학업을 통해서 83명(15%), 기타 48(9%) 순으로 결과가 나왔고 기타 의견으로는 물리적 충격을 통해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데모, 학생운동 등의 의견이 있었다.

중·고등학생을 나누어 분류한 결과 중학생은 잘 모르겠다 59명(44%), 학업을 통해서 33명(24%), 봉사를 통해서 23명(17%), NGO활동을 통해서 18명(12%), 기타 3명(2%) 순으로 선택을 하였고, 고등학생은 잘 모르겠다 136명(33%), NGO활동을 통해서 116(28%), 봉사를 통해서 66명(16%), 학업을 통해서 50명(12%), 기타 45명(12%) 순으로 선택을 했다.

이번 결과를 통하여 천안의 청소년들은 청소년을 통한 사회 변화가 가능하지만 그 방법은 모르겠다는 선택을 가장 많이 했다. 이것은 변화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방법에 대해 경험적으로 없기 때문에 나온 답변이라고 평가되며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답변이 중학생은 ‘학업을 통해서’, 고등학생은 ‘NGO활동을 통해서’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사회참여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폭넓은 사고가 바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식을 갖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99명(27%), 사회에 관심이 없다 87명(23%), 공부를 해야한다 77명(21%), 기타 65명(17%) 청소년의 소리를 잘 듣지 않는다, 어른들이 청소년을 무시한다, 지도자가 없다, 어른들이 무관심하다 등의 의견이 나왔고, 사회변화 어른들의 일이다 45(12%)의 순으로 선택한 것을 나타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을 나누어서 분석해보면 중학생은 방법을 잘 모르겠다 29명(26%), 공부를 해야한다 29명(26%), 사회에 관심이 없다 27명(24%), 기타 14명(12%), 사회변화는 어른들의 일이다 13명(12%) 순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은 방법을 잘 모르겠다 70명(27%), 사회에 관심이 없다 60명(23%), 기타 51명(20%), 공부를 해야한다 48명(18%), 사회변화는 어른들의 일이다 32명(12%)의 순으로 선택을 하였다.

(2) 청소년과 문화공간

천안에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시설이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천안 청소년들의 천안의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한 생각은 다음과 같았다. 적다 217명(37%), 아주 적다 213명(37%), 보통이다 93명(16%), 많다 32명(6%), 아주 많다 24명(4%) 순으로 선택을 했으며, 중·고등학교를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 중학생은 적다 42명(31%), 보통이다 39명(29%), 아주 적다 31명(23%), 아주 많다 14명(10%), 많다 10명(7%) 순으로, 고등학생은 아주 적다 182명(41%), 적다 175명(40%), 보통이다 54명(12%), 많다 22명(5%), 아주 많다 10명(2%) 순으로 선택을 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천안 청소년들의 74% 이상이 천안에 청소년문화공간이 부족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천안의 청소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청소년문화공간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 청소년들은 주로 이용하고 있는 문화 공간으로 극장 281명(48%), 쇼핑센터 84명(15%), 도서관 79명(14%), 기타 65명(11%) pc방, 서점, 보드카페, 음식점, 노래방, 당구장, 비디오가게, 만화책방, 오락실, 집 등, 찜질방 44명(8%), 체육시설 26명(4%) 순으로 선택을 하였으며, 중·고등학교를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 중학생은 극장 57명(41%), 도서관 21명(15%), 쇼핑센터 16명(12%), 기타 22명(16%), 찜질방 13명(9%), 체육시설 9명(7%) 순으로 선택을 고등학생은 극장 224명(51%), 쇼핑센터 68명(15%), 도서관 58명(13%), 기타 43명(10%), 찜질방 31명(7%), 체육시설 17명(4%)

순으로 선택을 하였다.

천안 청소년들의 한 달 동안의 문화공간 이용 횟수에 대한 조사에서는 1-2회 256명(48%), 3~4회 130명(24%), 자주 간다 76명(14%), 5~6회 75명(14%), ⑤기타 0명 순으로 선택을 했으며 중·고등학교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 중학생은 1-2회 62명(48%), 3~4회 25명(19%), 자주 간다 22명(17%), 5~6회 20명(16%), ⑤기타 0명 순으로 선택을 고등학생은 1-2회 203명(49%), 3~4회 105명(25%), 자주 간다 56명(13%), 5~6회 53명(13%), ⑤기타 0명 순으로 선택하였다.

이것은 천안 청소년들 대부분이 문화 공간을 통한 문화 활동을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이상은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천안에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시설이 적다면 앞으로 생겼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의 답변은 공연장 273명(54%), 기타 75명(15%) 전부, 음악교실, 스케이트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전용공간, 콜라텍, 대형pc방, 놀이동산, 악기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곳 등, 영화관 73명(15%), 박물관 40명(8%), 미술관 40명(8%) 순으로 선택을 하였으며 중·고등학교를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 중학생은 공연장 40명(33%), 영화관 39명(32%), 미술관 19명(15%), 박물관 12명(10%), 기타 13명(10%) 순으로 고등학생은 공연장 233명(62%), 기타 62명(16%), 영화관 34명(9%), 박물관 28명(7%), 미술관 21명(6%) 순으로 선택을 하였다.

(3) 청소년과 유해환경

천안에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주는 유해공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에 대한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이다 286명(47%), 많다 175명(28%), 아주 많다 75명(12%), 적다 51명(8%), 아주적다 30명(5%) 순으로 선택을 하였으며 중·고등학교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 중학생은 보통이다 66명(48%), 많다 29명(20%), 아주 많다 25명(18%), 적다 14명(10%), 아주적다 5명(4%) 순으로 고등학생은 보통이다 220명(46%), 많다 146명(30%), 아주 많다 50명(11%), 적다 37명(8%), 아주적다 25명(5%) 순으로 선택을 하였다.

당신이 가 본 유해 공간은 어디입니까?에 대한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타 178명(34%) 게임방, 노래방, 당구장, 만화방 120명(23%), 호프 106명(21%), 비디오방 62명(12%), 나이트 52명(10%) 순으로 유해공간을 이용한 것이 알

수 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을 분류해서 살펴보면 중학생은 기타 43명(28%), 만화방 42명(27%), 비디오방 34명(25%), 호프 23명(14%), 나이트 9명(6%) 순으로, 고등학생은 기타 135명(37%), 호프 83명(23%), 만화방 78명(21%), 나이트 43명(11%), 비디오방 28명(8%) 순으로 선택한 것을 알 수 있다.

당신이 만약 가 보았다면 한 달에 몇 회 정도 가 보았는가?에 대한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1~2회 186명(42%), 기타 117명(26%) 가지않는다 등, 자주 간다 69명(16%), 3~4회 47명(11%), 5~6회 24명(5%) 순으로 선택을 했으며 그리고 중·고등학생을 분류해서 살펴보면 중학생은 1~2회 60명(54%), 기타 27명(24%), 자주 간다 13명(12%), 3~4회 5명(5%), 5~6회 5명(5%) 순으로, 고등학생은 1~2회 126명(37%), 기타 90명(27%), 자주 간다 56명(17%), 3~4회 42명(13%), 5~6회 19명(6%) 순으로 선택한 것을 알 수 있다.

천안에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주는 유해공간 중 법적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에 대한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나이트 197명(35%), 기타 122명(22%) 모텔, 단란주점, 당구장, 노래방, 찜질방 등, 호프 118명(21%), 비디오방 89명(16%), 만화방 29명(6%) 순으로 선택을 하였고, 그리고 중·고등학생을 분류해서 살펴보면 중학생은 나이트 48명(37%), 기타 26명(20%), 호프 24명(19%), 비디오방 20명(15%), 만화방 12명(9%) 고등학생은 나이트 149명(35%), 기타 96명(23%), 호프 94명(22%), 비디오방 69명(16%), 만화방 17명(4%) 순으로 선택한 것을 알 수 있다.

PC방에 대해서 천안 청소년들이 어떠한 공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특별히 설문해 보았다. 이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PC방이 법적으로는 유해환경으로 분류되나 천안의 청소년들은 문화공간이라고 여기고 있는 청소년들이 유해공간이라고 여기는 청소년들보다 2배정도 많은 것으로 알 수 있다. 기타의견으로는 잘 모르겠다와 사용하기 나쁨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4. 결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문화적인 동물이다. 동물과는 다르게 먹고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활동이라는 독특한 활동을 통해서 삶의 만족과 인생의 행복을 가진다. 문화는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 대변하기도 한다. 청소년 문화도 청소년들의 것으로만 비춰지기보다는 그 시대를 나타내는 시대상이 되기도 하다.

청소년의 문화가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문화가 된다면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디딤돌의 역할이 될 것은 당연하지만 반면 유해한 환경을 통해 조성된 좋지 않은 문화가 청소년들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들어온다면 이 사회의 미래는 밝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해한 환경을 통해 조성된 문화를 알아차렸을 때는 선의의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피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기성세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청소년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포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청소년들이 사회변화에 대해 주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먼저 변해야한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

조사를 통해 천안에는 청소년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이 시급함도 알았다. 앞으로 천안에 우리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현재 천안에 있는 청소년 문화 시설들은 찾아가기 어려운 곳에 있던가 쉽게 찾아갈 수 없는 곳에 있어서 우리가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도 문제다. 천안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우리들을 유혹하는 유해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제1회 천안청소년문화축제를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다. 이번의 경험을 우리는 청소년 관계 기관, 학교,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에게 알릴 것이다. 함께 참여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변화를 위해 노력

하기 시작하면 이 사회는 변화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변화에 다른 사회 구성원들도 참여하고 협력한다면 진정한 사회의 변화를 이룬다는 우리의 꿈은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성경 말씀이 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빛을 찾아오도록 하고,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 청소년들은 건전한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먼저 시작하고, 또한 기성세대와 협력을 이룰 것이다.

청소년들의 열정과 참여, 그리고 기성세대의 순수한 지원이 있어야 청소년과 이 사회에 밝은 미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가 약속되어질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청소년 관계 기관과 성인들에게 다양한 요청을 하게 될 것이고 협력을 요청할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먼저 변화하고 성인이 변화해서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을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현장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학교·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그대들, 새 길을 내는가

전무용

내가 그럴 꿈이 있는가
내가 부를 노래가 있는가
내가 춤 춤이 있는가
내 앞에는 문득 길이 끊어졌다.
잡초가 무성하다.
가시나무가 우거졌다.

무엇을 꿈 꿀 것인가
어떻게 노래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춤 춤 것인가
사방 길이 난 도시 한 가운데서도
길이 보이지 않는데

푸른이들이 벌써 길 찾아
저만큼 가는가
새 꿈을 꾸며,
저기 저 새 하늘을 보며
그대들, 새 길을 내는가

전무용 시인 : 현재 대한성서공회 근무, 시집 <희망과 다른 하루>

획일적 입시위주 교육과 청소년의 인권

남궁정 (이대부고 2) · 김상이 (청원여고 2) · 전누리(구로고 2)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획일적 입시위주 교육과 청소년의 인권

우리는 흔히 청소년을 '미래의 희망'이라고 칭하는 표현을 주위에서 많이 접한다. 확실히 청소년들은 기성세대 이후의 우리 사회를 짊어지고 나아갈 큰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은 아마 백번을 생각해봐도 옳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에서, 집에서, 사회에서 항상 '꿈을 키우고 주체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2004년 현재, 사회적으로 그러한 '의무'가 주어지는 우리 청소년들의 권리, 청소년들의 인권은 과연 어떠한가. 우리는 '입시위주 교육'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인권에 대한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생각해보았다.

1. 강제적인 0교시, 보충학습, 야간자율학습

0교시를 실시하는 학교들의 등교시간은 평균 오전 7시-7시 30분 사이이다. 새벽 5시 30분-6시 사이에 일어나서 졸린 눈을 비비며 급하게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은 뒤 아침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학교로 향한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소년들은 0교시 시간에 대부분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졸음을 못 이겨 잠을 잔다. 그나마 아침 일찍 아이들을 불러 수업을 해서 학교에서 얻어내고자 하는 효과마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특기적성'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하는 0교시 수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규수업 진도를 그대로 나가거나 문제집을 푸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당초 '특기적성교육'의 목표와는 아무 관계없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방과 후 보충학습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다. 7시간의 정규수업이 끝난 뒤에 청소년들은 씻거나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똑같은 수업을 2시간 더 들어야 하는 것이다. 별다른 내용이 없으면서 '특기적성'의 감투를 씌우는 것은 0교시와 같다. 특히 보충학습은 여름방학에는 평균 15일, 겨울방학에는 30일 정도를 역시 '특기적성'이라는 명목으로 실시되고 있고 심지어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는 일요일을 비롯한 공휴일에도 학교에 나오도록 하고 있다.

야간자율학습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밤 9시까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밤 10시, 11시를 넘기면서까지 강제적인 '자율학습'을 시키는 학교도 있다. 자기 몸을 꼬집으면서까지 졸음을 참으며 억지로 공부를 하는 청소년들 중 일부는 '야자'가 끝나고 또다시 집에서 과외를 받거나 학원으로 향한다.

평균 수면시간은 4시간-6시간, 청소년들은 다음날에도 또 다음날에도, 3년 내내 이러한 일과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0교시/보충학습/야간자율학습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선, 청소년들에게 건강상의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엄청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준다는 것이다. 하루에 너댓 시간을 자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러한 생활이 반복되면서 누적되는 피로는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어깨/허리통증, 눈의 피로, 피부 손상은 물론, 장시간 의자에 앉아있음으로써 척추에 무리를 주게 되고 정신력 저하와 학습의욕 감퇴, 불면증, 노이로제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심신의 안녕을 보장하고 보호해줘야 할 청소년들을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심신의 안녕'을 침해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0교시/보충수업/야간자율학습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보다는 학교 측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시키는 것이다'라는 논리로 학부모들을 부추기면서까지 청소년의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을 강제로 학교에 잡아두고 있는 실정이다.

꼭 강압적으로 선생님이 강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학생들이 선생님 앞에서 '싫다',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생활태도를 보고 선생님들께서는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신다. 모든 것이 입시와 연결되어 있는 현실에서 솔직히 우리 청소년들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는 학교와 교사의 압력, 체벌과 징계, 폭력까지 동원되면서 청소년들이 순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이 일반화되어있어 학교라는 곳이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인 선택의 자유'라는 권리를 박탈하고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여가시간을 갖는다거나 자기계발을 할 시간은 고사하고 생리적인 활동을 할 시간, 수면시간마저 부족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교시/보충학습으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감을 주는 것도 폐해 중

하나다. 정규수업이 아닌데도 4만원-10만원의 '특적비'를 강제적으로 더 내야하는 것이다. 아예 수업료에 포함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문제집 등 교재를 따로 사야하는 경우에는 과목 당 8천원-9천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 완전히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돈을 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0교시/보충수업/야간자율학습을 시행했을 때 과연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가. 앞에서 밝힌 것처럼 이 시간에 청소년들은 부족한 잠을 보충하거나 너무 오래 이어지는 수업에 집중력이 크게 떨어져 제대로 학습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특별한 내용이 없이 교과진도를 나가는 수업은 청소년들을 다시 사교육에 의존하게끔 만들고 있다. 어쨌든 많은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몇 시간을 보내든 상관없이 아직도 계속 학원에 나가고 과외를 받고 있다.

이러한 0교시/보충학습/야간자율학습의 문제들은 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에서, 평준화 지역보다는 비평준화 지역에서 더 광범위하고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과행운을 방관하고 묵인하는 교육당국에 의해 이러한 문제는 개선하려는 노력은 물론이고 시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

0교시/보충학습/야간자율학습이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크나큰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인권침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는 것은 결국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입시위주 교육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 대학입학만을 최우선 가치로 보고 '입시를 위한 효율성과 능력' -사실은 그리 효율적이지도 않지만- 만을 중시하는 학교교육과 교육제도가 고쳐지지 않는 한 이러한 강제적인 0교시/보충학습/야간자율학습은 계속해서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면서 더 큰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앞서 이야기 한 0교시 등 불법적인 비정규 수업이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현상으로써, 바로 청소년들이 교육주체이자 학교의 주인으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학생자치활동'을 할 시간마저도 빼앗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청소년들이 이러한 극심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아무 말 못한 채 순응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하거나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입시위주 교육이 청소년자치활동을 어떻게 방해하고, 청소년의 인

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짚고 넘어가 본다.

2. 청소년자치활동 - CA/동아리/학생회

1) CA/동아리

우리의 속에 어떠한 재능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숨겨진 끼와 재능을 찾아내고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된다. 학교 안에서의 CA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이 그 예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활동들은 정말 우리의 재능을 찾아내어 개발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설정되어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먼저 CA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살펴보자. 학교에선 오직 공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공부외의 다른 시간들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활동 시간은 너무나도 부족하다. 1년에 고작 해야 10번 안팎인 활동으로 과연 우리 속에 잠재되어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

또 아이들은 CA나 동아리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 하지 못하고 있다. 활동 시간을 우리의 또 다른 재능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인식 하기보다는 적당히 시간이나 때우는 시간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다양성과 전문성부족, 중요성 교육 부족, 예산부족등과 같은 이유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CA나 동아리활동의 선택의 폭은 제한되어있어서 다양성이 부족하여 대부분 비슷비슷한 CA,동아리 모임이 생성된다. 어느 학교에선 25개정도의 CA 중에서 영화 감상반만 14개 정도가 있다.

또한 그 동아리나, CA의 담당 선생님은 전문적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져 학생들의 의욕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그 동아리나 CA의 뚜렷한 목표나 색을 잃게 된다. 또 이러한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서 CA 자체를 노는 시간이라 오해하는 아이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정부는 단순한 입시제도뿐만 아니라 이러한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게 아이들에게 자신의 꿈을 향해 이러한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처럼 CA,동아리 활동을 방과 후 운영 하여 입시제도에 반영 한다든

지, 그러한 활동을 하면서 추천서를 받아 입시에 반영한다든지 말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활동을 하려면 금전적 문제, 즉 재정 지원이 해결되어야 한다. 어떤 학교 밴드부는 밴드부 입에도 불구하고 연습실이 없고 악기가 없다. 하지만 학교는 학교 측이 알 바가 아니라고, 예산이 없다며 외면한다. 이렇게 금전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CA나 동아리 활동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분명 우리는 입시제도의 판에 박힌 공부 외에 자신도 모르는 재능, 개발해야 한다는 사회적요구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한 외침들을 듣지 않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묵인하게하고 좌절하게 만든다. 하루빨리 교육관계기관과 학교에서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과 입장을 바꿔 생각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게 해 이러한 괴리감을 없애야 할 것이다.

2) 학생회

학생회는 흔히 '학생 자치 활동의 꽃'이라고 이야기 될 만큼 중요한 자치활동의 영역이며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유일한 통로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학생회가 자기 본분을 다하거나, 활발히 활동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현 중·고등학교 학생회가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 이유는 바로 입시위주의 교육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학생회 활동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학생회 간부들도 중간고사에 기말고사, 수능이 닥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학생회 활동을 접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도 학생회, 동아리활동, 축제 등등 학생자치활동이 시험이나 면학분위기를 흐리고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회 활동에 대한 지지, 지원이 미약하며 활동에 제약이 많다.

뿐만 아니라 학생회칙은 많은 문제가 있다 하겠다.

학생회칙에 보면 학생회, 학생회의 목적은 학생들의 기구로서 민주적,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적 시민 함양을 위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많은 학교의 학생회칙의 목적으로 명시해 두고 있다.

그러나 과연 많은 학교 혹은 이런 목적을 규정해두고 있는 학생회칙들이 이런 목표를 지향하고 있을까? 그러나 각 학교의 학생회 활동의 실상과 학생회칙을 천천히

살펴보면 학생회 활동의 목표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먼저 분명 회칙의 목적에서는 자율적 자치활동을 규정해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학생회칙의 기능과 권한(혹은 현실적 학생회의 활동)을 살펴보면 모든 학생회의 활동은 학교당국(학생회 지도위원회)의 사전·사후 지도뿐만 아니라 승인 또는 재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것이 자율적인 자치활동인가? 물론 학생회 활동이 교육활동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런 과도한 권한은 지도가 아닌 자치활동의 장악, 혹은 사전 통제의 의미 밖에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회칙을 살펴보면 학생회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까지 있다.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진행한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을 통해 만들어진 교칙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189개 학교 중 50%가 넘는 학생회칙에는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이 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정치적 성격을 띠는 서명운동에 참여를 해도 조항에 어긋나게 된다. 위에도 말했듯이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이다. 또한 기본권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장의 행정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살펴보자. 이것은 역시나 위에도 말했듯이 학생회의 목적이 자치활동이지만 이것은 통제를 의미하며 또한 마땅히 학교운영에 참여해야 할(법적으로도 규정되어있는) 학교교육의 주체의 한부분에 학생이 참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런 규정뿐 만 아니라 학생회 임원의 자격제한, 또한 학생회장 후보자의 출마제한, 또한 선거 당선자의 학교장(학생회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 혹은 이런 학생회칙 조차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학교, 이런 학생회조차 없는 학교가 태반이다.

과연 이 같은 문제의 대안은 무엇일까? 바로 학생회의 법제화이다. 나라의 법으로 의무적으로 각 학교마다 학생회를 설치하고 또한 법으로 학생회칙을 규정하여 자율적인 학생회가 운영될 기반을 만들고, 학교 교육의 한 주체인 학생이 학교 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예를 들자면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회 혹은 학생의 참가) 제도적 기반을 닦아야 한다는 점이다.

3. 결론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획일적, 권위적인 입시 위주 교육에 의해 입는 인권 침해의 현상과 그로인해 청소년들의 가장 큰 권리 중 하나인 청소년자치활동은 어떻게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지 이야기 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의 원인은 전폭적으로 입시 위주 교육에 있다고 본다. '사회제도에 순응하고 비판적 논리가 결여된 엘리트'를 만들어내기 위한 대학입시교육은 잠마저도 제대로 잘 수 없게 하면서 강제로 공부를 시키는,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를 유발시키며 이러한 모순점을 극복하고 청소년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할 청소년자치활동마저 방해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주어야 하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반하는 것이다.

더 멀리 보자면 입시 위주 교육의 근간은 바로 학벌 사회에 있다. 고졸보다는 대졸, 2류 대학보다는 1류 대학을 더 선호하는 학벌 사회는 입시 위주 교육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학벌사회를 타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입시 위주 교육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학교는 청소년들의 '꿈'을 위해 존재한다. '대학'과 '입시'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지금의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이라 말할 수 있는가. 언제까지 청소년들의 고통과 절망을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하루 빨리 반 인권적인 입시 위주 교육을 없애고, 민주적이며 청소년들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청소년들의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체도가 도입되게 해야 할 것이다.

<첨부 자료>

■ 강제자율보충신고센터(1318virus.net)에 접수된 신고내용 중에서 학생의 의견

- 학 교 : [경기 수원]** 고등학교
- 신고항목 : 0 또는 -1교시 | 강제보충수업 | 강제야간자율 |
- 신고내용 :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학교는 스승이라 부를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듯 합니다. 선생님을 존중하고 배려하는만큼 선생님께서도 저희를 존중하고 배려해 주셔야하는데 수원 00고는 현재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학생이 자율 학습을 하지 않았다고 뺨을 때리고 발로 차거나 규정에 어긋난 몽둥이로 구타를 하여 아이들의 몸에는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누가 그런 짓까지 해가면서 애들을 학교에 잡아두고 싶으시겠지만, 선생님들의 의견이 아이들의 의견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참혹한 행위를 교육의 공간인 학교에서 자행하고 계신 것에는 동조할 수 없습니다.

수원 00고 뿐만이 아닙니다. 수원에 있는 모든 학교가 지금 강제 야간 자율 학습 때문에 학생의 참된 교육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아이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수원의 일만도 아닙니다. 지금 서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의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한숨 소리가 가득합니다. 게다가 서울에서도 일부 학교가 몰래 강제 야간 자율 학습을 조금씩 하는 현상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참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교사가 학생에게 거짓말을 하고, 교육부에 거짓말을 하는데 학생들이 그 교사를 믿고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선생님들의 이기심입니다.

0교시를 수학- 재미있는 실용 수학 따위로 허위 조작하여서 강제로 학부모들의 귀중한 돈을 갈취해갔으며, 아이들을 때리는 것을 당연한 것인 듯 떠들고 다니십니다.

두발 자유 그런 거 필요없습니다. 학교의 교칙이니 따르라 하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면 학생측에서는 그 것을 비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의 목소리마저 묻어버리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원 지역에 아니 우리 나라 전지역에 이러한 참혹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지 않도록 [청소년인권센터] 여러분께서 더욱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학생으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일요일, 고교생이 실종된 도시(www.1318virus.net 기사 중에서)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강제 자율학습보충수업 시행령을 전교조 측과 협상하여 내린 바 있고 비교적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생들은 415 총선을 치르는 날, 어린이 날, 심지어 매주 일요일에 학교에 등교하는 등 서울 학생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 독립신문 바이러스(www.1318virus.net)는 지난 5월 8일(토) 비평준화 지역의 하나인 포항을 찾았다.

평일과 달리 토, 일요일이면 명동, 신촌의 온갖 극장들과 거리에서 청소년들이 넘실거리는 서울과 달리, 포항엔 토, 일요일 모두 고등학생이 없었다. 나이 어린 중학생이거나 혹은 실업계 학생 소수만이 포항 시내에서 마주칠 수 있었다.

포항엔 고등학생이 없나?

포항의 고등학생은 어디에 있는가?

바이러스 팀은 일요일 아침 포항의 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며 고교생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포항의 고교생들은 대체로 토요일, 일요일까지 강제적으로 자율학습보충수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모습을 생생하게 바이러스 영상뉴스에 담아 보았다.

(영상 뉴스 mms://movie.heemang21.net/20040510/yaja.wmv)

입시위주 교육과 학생인권

이 문 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청소년위원장)

입시위주 교육과 학생인권

우리교육의 입시위주 체제는 학생들의 삶의 상당부분을 제약하고 있다. 중등교육 과정을 마치면 인생이 결정되는 학벌사회에서 보통교육으로서 중등교육이 설 자리는 이미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 · 학부모 · 교사 모두 현재의 희생을 통해 학생의 미래를 보장하려는 비정상적인 활동과 행위가 학교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비상식이 상식을 전복시킨 상태에서 학교는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인 지 오래며 대학을 가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은 정리되어야 할 것들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은 권위주의적인 학교와 교육당국이 입시교육을 매개로 거의 몰가치 한 것으로 취급하는 대표적인 교육적 가치 중의 하나다. 그러므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표적인 세 가지 인권침해 사항을 통해 우리 학교의 현재 모습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학생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어떻게 바뀌 나가야 할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1. 0교시, 야자, 보충을 통한 인권 침해

1) 실태

상당수의 인문계고등학교에 0교시, 야자, 보충이 강제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들어 전교조의 반대로 0교시, 야자, 보충이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나 아직도 편법적인 운영이 여전하다.

보충수업을 하겠는가? 하고 싶다면 어떤 분야를 원하는가? 라고 학생들에게 묻지 않는다. 희망학생의 다양한 뜻을 학교에서 감당하기도 힘들고, 비희망학생이 생길 경우 한 곳에 모아 놓을 공간이 없다고 한다. 즉 관리가 힘들다는 거다.